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2003. 11.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 동 부

Ministry of Labor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연 구 원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상훈(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신현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목 차

I. 서 론	1
II. 공공직업훈련 환경변화	4
1. 직업훈련 법·제도의 변화	4
2. 노동시장의 변화	6
가. 노동력 수요의 변화와 전망	6
나.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전망	9
3. 공공직업훈련 교육비 규모의 변화	12
4. 직업의식과 기업문화의 변화와 전망	15
5. 환경변화의 함의	16
III. 선진국의 직업훈련 동향	20
1. 미국	20
2. 영국	23
3. 일본	25
4. 호주	27
IV. 공공직업훈련 개관	31
1. 기능인력 양성과 공공직업훈련	31
2. 공공직업훈련기관	35

가. 직업전문학교	35
나. 기능대학	39
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3
 V. 권역별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47
1.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	47
2. 권역별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52
가. 권역별 전략산업	52
나.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53
3. 지역산업 특성화에 따른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특성화 방안 검토	70
가. 기능대학	70
나. 직업전문학교	73
 VI.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 방안	77
1. 기본방향	77
2. 구체 방안	78
가. 권역별 직업훈련체제의 작동원리	78
나. 지역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	79
다. 기술교육대학의 역할	79
라. 지방정부와의 연계 강화	80
 참고문헌	83
 <부록 1> 기능대학 학과별 모집인원 현황(2004년)	85
<부록 2>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직종 모집정원(2003년)	86

〈표 목차〉

<표 II-1> 직업훈련 관계법 주요변천 내용	5
<표 II-2>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수 전망	7
<표 II-3> 서비스업 지식집약별 취업자수 전망	8
<표 II-4>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9
<표 II-5> 생산가능인구 전망	10
<표 II-6>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추이 및 전망	11
<표 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2
<표 II-8> 주요 국가의 1인당 공공지출 직업훈련비	14
<표 II-9> 시장과 기업에서의 변화	16
<표 IV-1>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 현황	33
<표 IV-2> 공공훈련기관 훈련과정 비교	34
<표 IV-3> 직업전문학교 설립 현황	35
<표 IV-4>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양성과정 설치 학과 현황	37
<표 IV-5> 2002년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양성과정 지식기반 직종 설치 현황	37
<표 IV-6>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38
<표 IV-7> 기능대학 설립 및 개편 현황	41
<표 IV-8> 기능대학 설치학과 현황	42
<표 IV-9> 연도별 기능대학 취업률 및 구인 요청률	43
<표 IV-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부 과정 학과 및 정원 현황	46
<표 IV-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반대학원 현황	46
<표 V-1> 4대 지역산업 지원계획	47
<표 V-2> 4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 지원계획	51
<표 V-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권·항만권과 전략산업과의 연계(안)	52

<표 V-4>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권역별 전략산업	53
<표 V-5>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권역별 설립 현황	54
<표 V-6>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설치학과 권역별 현황	56
<표 V-7>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1년 과정 설치 권역별 현황	57
<표 V-8> 수도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59
<표 V-9> 수도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60
<표 V-10> 강원권 전략산업 관련 공공직업안정기관 학과/공과 및 모집인원 현황	61
<표 V-11> 충청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62
<표 V-12> 충청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63
<표 V-13> 호남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65
<표 V-14> 호남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66
<표 V-15> 영남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68
<표 V-16> 영남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69
<표 V-17> 기능대학 특성화 방안 관련 학과	73
<표 V-18> 직업전문학교별 특성화에 따른 직종 설치 및 개편 방안	75

〈그림 목차〉

[그림 II-1] 숙련정도별 향후 5년간 고용증가율	7
[그림 II-2] 직업훈련 투자환경의 변화	17
[그림 IV-1] 우리나라 기능인력 공급체계	31
[그림 VI-1] 권역별 직업훈련 체제에서의 연계시스템	78

I. 서 론

-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주도의 공공직업훈련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공직업훈련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그간의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점은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의 경직성 및 관료주의, 그리고 이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였음.
 - 이 결과 공공직업훈련이 수요자의 필요(needs)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장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훈련대상 선정, 훈련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세계화가 개별 국가경제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나, 이러한 세계화 추세의 진전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방안으로서 역설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보편적 추세임.
 -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비단 경제적 의미에서의 성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분배에 있어서의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의 지역 분권화를 아우르는 것임(임상훈 2003).
 - OECD에서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지역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역파트너십에 의한 지역노동시장의 운영이 중앙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정책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발견 (OECD 1997).

-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신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실행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임.
 - 지역노동시장 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 단위 산학연계 정책의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 단위에서 직업안정 서비스와 직업훈련 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 등은 향후 신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임.
 - 특히 지역 단위에서 직업안정 서비스와 직업훈련 시스템 간의 연계강화는 권역별 직업훈련 체제의 운영 모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핵심적인 훈련정책 과제임.
-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공직업훈련의 분권화 및 권역별 직업훈련체제로의 개편의 당위성과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으나, 공공직업훈련 주체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그리고 권역별 직업훈련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정택수 외(2000)의 연구에서는 권역별 기능대학 운영체제를 논하고 있으나, 공공직업훈련기관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권역내 고용안정기능 및 관련 주체들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음.
 - 김주섭 외(2002)의 연구에서도 권역별 직업훈련체제 도입의 당위성과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방안을 언급하고 있으나, 각 주체들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본 연구는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권역별 체제에서 각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적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수요자중심적인 공공직업훈련체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또한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내에서 공공훈련기관과 관련 주체들과의 합리적 연계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직업훈련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심적 역할의 일각을 담당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 간 연계강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공공 직업훈련의 정책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Ⅱ. 공공직업훈련 환경변화

1. 직업훈련 법·제도의 변화

○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래로 직업훈련에 관한 법은 그간에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왔음.

-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는 시대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임.

- 가장 최근의 법·제도의 변화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의 일대 혁신적인 전환점을 갖게 하였으며, 폐쇄성이 짙은 직업훈련시장에 경쟁과 평가의 원리를 도입하여 개방성을 강조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

· 그 동안 직업훈련시장은 공공직업훈련,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정직업훈련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고용보험이 도입되면서 고전적인 직업훈련 형태와 운영에 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라는 틀로의 변모가 요구되어 직업훈련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

○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주요사업인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

- 그 동안 운영되어 왔던 직업훈련기본법은 의무제도가 존치되어 있었으나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이원성을 배제하지 못하였음. 이에 이원적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양 제도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직업훈련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은

1999년 1월부터 시행됨.

- 이와 같이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직업훈련에 대한 특별조치법(1974), 직업훈련기본법(1974), 직업훈련촉진기본법(1976) 등의 직업훈련은 관계법의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여 변천하여 왔음.

<표 II-1> 직업훈련 관계법 주요변천 내용

법 령 별		주요 내용
직업훈련법	'67.1.16제정법 법률 제1880호	· 근로기준법, 사업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시해 오던 직업훈련을 일원화하여 국가적인 정식제도 발전
	'73.3.13개정법 법률 제2606호	·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교사훈련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제정법을 보완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 법	'74.12.26제정 법률 제2741호	· 일정규모이상 사업주에게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제 규정
직업훈련기본법	'74.12.31제정 법률 제2973호	·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 · 직업훈련분담금제를 설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토록 선택적으로 규정
	'79.12.28개정 법률 제3214호	· 직업안정촉진을 위해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 양성훈련 외에 전직훈련도 의무에 포함
	'81.4.8개정 법률 제3422호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법률개정 (노동청→노동부)
	'81.12.31개정 법률 제3422호	· 직업훈련의 원칙에 여성, 중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성 포함 ·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훈련교사 외에 사무, 서비스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 확대 · 전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재해위로금 등 지원근거규정 ·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 향상 및 재훈련도 의무에 포함
	'86.5.9개정 법률 제3814호	· 직업훈련의무부과 기준의 변경 · 훈련의무인정범위 확대 · 협동훈련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 · 분담금 자진신고 납부제도 도입
직업훈련촉진 기본법	'76.12.31제정 법률 제2974호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출발
	'81.12.31개정 법률 제3508호	· 기금의 용도 확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
	'86.5.9개정 법률 제3815호	· 기금의 용도 확대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대부)
	1999.2.8제정 법률 제5882호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 · 직업훈련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귀속

자료: 노동부(1999), 『'98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2. 노동시장의 변화

가. 노동력 수요의 변화와 전망

○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한 고기술, 전문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경제화에 따른 지식집약화와 기술의 변화는 저기능인력과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고, 고급 인적자원과는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학력, 고숙련의 전문인력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임.

· 미국의 경우는 숙련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나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하여 높고 두 직종 모두에서 고숙련직의 증가율이 저숙련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사무직은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나 생산직은 감소하여 왔으며, 숙련수준에서는 고숙련 사무직이 저숙련 사무직에 비하여 높으나 생산직에서는 고숙련직의 감소율이 저숙련직에 비하여 더 커 지식정보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고숙련 생산직에서 더 컸음을 시사해주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향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 노동통계국(BLS)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8~2008년 사이에 직종이나 산업 모두에서 지식정보화 부문이 고용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고용성장 상위 20대 직종을 보면, 1위에서 6위까지가 정보통신관련 직종이며, 20개중 9개를 이 분야 직종이 차지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산업에서도 컴퓨터 및 자료처리 서비스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에서 2008년 10년 동안 1.17배의 고용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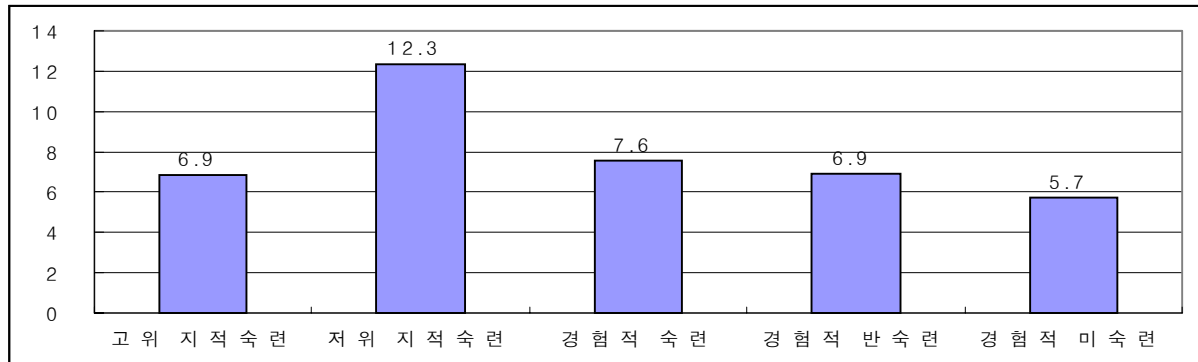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지식정보화에 따른 고숙련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숙련수준별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 직업 구성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숙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지적 숙련 직업들의 구성비는 현재 18.6%에서 5년 후에는 19.1%

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험적 숙련 수준에서도 숙련 직업 > 반숙련 직업 > 미숙련 직업의 순으로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II-1] 숙련정도별 향후 5년간 고용증가율

(단위 : %)



주: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강순희·이병희·전병유·정진호·최강식·최경수,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산업별 변화전망

- 제조업에서는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0~2010년 사이에 정보통신기술 및 중고위기술 제조업 취업자는 연평균 2.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저위기술 제조업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표 II-2>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

	2000	2005	2010	연평균증가율
ICT 및 중고위기술 제조업	1,516 (36.0)	1,728 (39.4)	1,877 (42.6)	2.15
중저위기술 제조업	1,065 (25.3)	1,079 (24.6)	1,027 (23.3)	-0.37
저위기술 제조업	1,630 (38.7)	1,579 (36.0)	1,502 (34.1)	-0.81
합 계	4,213 (100)	4,388 (100)	4,406 (100)	0.45

자료: 강순희·이병희·전병유·정진호·최강식·최경수,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서비스업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2000~2010년 사이에 취업자가 연평균 2.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연평균 2.3%의 증가율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II-3> 서비스업 지식집약별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

	2000	2005	2010	연평균증가율
지식기반 서비스업	4,050 (26.4)	4,637 (26.8)	5,235 (26.9)	2.60
일반서비스업	11,291 (73.6)	12,667 (73.2)	14,226 (73.1)	2.34
합 계	15,341 (100.0)	17,304 (100.0)	19,461 (100.0)	2.40

자료: 강순희·이병희·전병유·정진호·최강식·최경수,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직업별 변화전망

- 직업별로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95년 2.58%에서 2010년 2.77%로), 전문가(4.76에서 6.73%로), 기술공 및 준전문가(9.03에서 12.09%로) 등 소위 고학력 직종의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나, 생산직에 속하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관리자(15.80에서 12.37로),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10.67에서 10.56), 그리고 단순노무직(11.21에서 10.00으로)은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무직원'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미미하게 상승할 것이며,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까지 꾸준히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II-4>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단위: 천명, %)

산 업	1995	1998	2000*	2005*	20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25 (2.58)	515 (2.59)	604 (2.75)	646 (2.71)	716 (2.77)
전문가	971 (4.76)	1,107 (5.56)	1,381 (6.28)	1,532 (6.43)	1,743 (6.7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840 (9.03)	2,140 (10.74)	2,437 (11.09)	2,806 (11.78)	3,129 (12.09)
사무직원	2,510 (12.32)	2,418 (12.13)	2,732 (12.42)	2,988 (12.54)	3,254 (12.57)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4,464 (21.90)	4,722 (23.70)	5,315 (24.17)	5,911 (24.81)	6,603 (25.51)
농림어업근로자	2,390 (11.73)	2,307 (11.58)	2,303 (10.47)	2,019 (8.48)	1,917 (7.40)
기능원 및 관련기능관리자	3,219 (15.80)	2,545 (12.77)	2,577 (11.72)	2,985 (12.53)	3,203 (12.3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175 (10.67)	2,076 (10.42)	2,424 (11.03)	2,332 (10.47)	2,732 (10.56)
단순노무직	2,284 (11.21)	2,096 (10.52)	2,214 (10.07)	2,441 (10.25)	2,589 (10.00)
합 계	20,378 (100.00)	19,926 (100.00)	21,989 (100.00)	23,823 (100.00)	25,885 (100.00)

주: *는 전망치임.

자료: 강순희 · 이병희 · 전병유 · 정진호 · 최강식 · 최경수,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성장 20대 직업도 미국과 유사하게 컴퓨터 관련 직종 등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직종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화, 소프트화,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1세기에는 경제의 정보화, 소프트화,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강도 높은 육체노동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적·감성적·미적 능력이 요구되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는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전망

○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는 인력의 양적인 공급증가세 둔화와 노동력의 질적인 수준

의 제고로 집약할 수 있음.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것임.

- 인구성장률은 1990~1995년 연평균 1.0%에서 1995~2000년 0.9%, 2000~2005년까지 0.8%, 2005~2010년 0.6%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로 정의된 생산가능인구는 70년대와 80년대에는 연평균 2~3%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01~2005년간에는 증가율이 0.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5>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천명, %)

	1999	2000	2001	2002	2005	2010
전 체	35,623 (1.08)	35,994 (1.04)	36,340 (0.96)	36,666 (0.90)	37,624 (0.87)	39,459 (0.92)
남 자	17,332 (1.17)	17,498 (1.96)	17,668 (0.97)	17,827 (0.90)	18,309 (0.91)	19,265 (0.99)
여 자	18,291 (1.00)	18,496 (1.12)	18,672 (0.95)	18,839 (0.89)	19,315 (0.83)	20,195 (0.8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강순희·이병희·전병유·정진호·최강식·최경수,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베이비붐 세대의 장노년화 및 인구의 노령화, 청년층 인구의 감소

- 1995년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47.4%를 차지하던 30~54세의 중장년층의 비중은 1999년 47.8%로 다소 증가하고 향후 2010년에는 50.9%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노동력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55세 이상 연령층은 1990년 17.3%에서 1999년 20.6%로 상승한 후 2000년대 중 이 추세가 가속되어 2010년에는 25.3%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를 전망임.
- 한편, 1990년 14.2%를 차지하던 15~19세 인구는 1999년 10.9%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도 계속 진행되어 2010년에는 7.3%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구의 고학력화 경향

- 중등교육의 보편화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 남녀간 학력격차의 감소로 나타난 고학력화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와 맞물리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킬 것임.
- 비록 1998년 이후 외환위기 과정에서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 증가가 정체되기는 하였으나 경제가 지식정보화사회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1-6>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추이 및 전망

(단위: 천명, %)

	1990	1995	1998	1999	2005	2010
전 체	30,887	33,552	35,241	35,623	37,623	39,457
15~19세	4,378	3,715	3,863	3,896	3,218	2,870
20~24세	3,199	3,482	2,986	2,903	2,693	2,583
25~29세	3,954	4,075	4,161	4,098	3,937	3,914
30~34세	3,859	4,187	3,949	3,938	3,644	3,548
35~39세	2,944	3,986	4,384	4,376	5,119	5,582
40~44세	2,700	2,977	3,674	3,894	4,764	5,385
45~49세	2,323	2,521	2,730	2,768	2,998	3,206
50~54세	2,199	2,202	2,271	2,372	2,333	2,399
55~59세	1,732	1,969	2,159	2,112	2,371	2,534
60~65세	1,237	1,571	1,871	1,938	2,475	2,828
65세이상	2,364	2,869	3,193	3,330	4,072	4,610
(비 중)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세	(14.2)	(11.1)	(11.0)	(10.9)	(8.6)	(7.3)
20~24세	(10.4)	(10.4)	(8.5)	(8.1)	(7.2)	(6.5)
25~29세	(12.8)	(12.1)	(11.8)	(11.5)	(10.5)	(9.9)
30~34세	(12.5)	(12.5)	(11.2)	(11.1)	(9.7)	(9.0)
35~39세	(9.5)	(11.9)	(12.4)	(12.3)	(13.6)	(14.1)
40~44세	(8.7)	(8.9)	(10.4)	(10.9)	(12.7)	(13.6)
45~49세	(7.5)	(7.5)	(7.7)	(7.8)	(8.0)	(8.1)
50~54세	(7.1)	(6.6)	(6.4)	(6.7)	(6.2)	(6.1)
55~59세	(5.6)	(5.9)	(6.1)	(5.9)	(6.3)	(6.4)
60~65세	(4.0)	(4.7)	(5.3)	(5.4)	(6.6)	(7.2)
65세이상	(7.7)	(8.6)	(9.1)	(9.3)	(10.8)	(11.7)

주: 비중은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중임.

자료: 강순희·이병희·전병유·정진호·최강식·최경수,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의 증가

-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와 서비스업 비중의 증대, 유연 고용의 증대/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수요측면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특히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에 의한 여성인력의 고학력화, 고급화, 전문화, 그리고 육아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 진전 등 노동공급 측 요인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 1970년에 40% 미만이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향후에도 남성의 상승세를 앞질러 2010년에는 56.0%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도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할 것이나 여자보다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0년에 75.1%인 참가율이 2010년에 75.7%까지 상승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참가율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천명, %)

	2000	2005	2010
경제활동인구	21,926	23,823	25,885
남 자	13,141	13,838	14,576
여 자	8,785	9,985	11,309
경제활동참가율	60.9	63.3	65.6
남 자	75.1	75.6	75.7
여 자	47.5	50.7	56.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강순희 · 이병희 · 전병유 · 정진호 · 최강식 · 최경수,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3. 공공직업훈련 교육비 규모의 변화

○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OECD 주요 국가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을 살펴보았음(표 II-8 참조).

- <표 II-8>의 1인당 공공지출 직업훈련비는, OECD에서 집계된 GDP 대비 공공지출비용과 노동력 대비 직업훈련 참가비율을 가지고 GDP 및 노동력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것임.

○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에 대한 1인당 공공지출비는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금에서 지출되는 전체 훈련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3.38억 달러로서, 비교국가들 가운데 호주(0.73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교국가들 가운데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2001년, 63억 달러)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이들 가운데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가 적은 국가들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었음.
- 그러나 규모가 적은 국가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규모를 GDP 대비 비율로 보면, 2001년에 스웨덴(0.30%), 벨기에(0.24%), 핀란드(0.29%), 스페인(0.14%) 등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0.08%), 영국(0.05%), 호주(0.02%)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OECD, 2002a).

○ 1인당 공공지출 직업훈련비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호주보다도 적었으며, 비교국가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1인당 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188달러였고, 스페인 313달러, 호주 777달러로 이들 3개국만이 1,000달러 미만이었음.
- 미국(2,866달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3,000달러 이상이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1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2,823달러).

○ 이러한 현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비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음.

<표 II-8> 주요 국가의 1인당 공공지출 직업훈련비

국가	구분	공공지출비용(1억 달러)				참여인원(1천 명)				1인당 비용(달러)			
		1998	1999	2000	2001	1998	1999	2000	2001	1998	1999	2000	2001
호주	전 체	2.23	0.81	0.78	0.73	183	76	95	94	1,221	1,075	817	777
	실업자훈련	2.23	0.81	0.78	0.73	160	55	77	72	1,391	1,483	1,014	1,022
	재직자훈련	-	-	-	-	22	20	18	23	-	-	-	-
벨기에	전 체	6.28	6.02	5.49	-	390	398	389	-	1,608	1,514	1,413	-
	실업자훈련	4.02	4.01	3.66	-	123	131	119	-	3,267	3,069	3,086	-
	재직자훈련	2.26	2.26	1.83	-	267	267	270	-	845	846	678	-
핀란드	전 체	5.68	5.14	3.63	3.51	110	109	89	72	5,153	4,721	4,089	4,837
	실업자훈련	5.42	4.62	3.26	3.14	61	60	67	68	8,916	7,695	4,907	4,640
	재직자훈련	0.26	0.51	0.36	0.36	49	49	22	5	523	1,054	1,636	7,673
프랑스	전 체	49.37	44.75	36.55	32.75	710	756	704	646	6,951	5,920	5,190	5,072
	실업자훈련	45.01	40.42	32.64	28.82	588	595	563	498	7,656	6,790	5,793	5,784
	재직자훈련	4.36	5.77	3.92	3.93	125	161	141	147	3,488	3,594	2,781	2,667
독일	전 체	72.91	73.62	63.45	62.77	606	530	598	489	12,032	13,883	10,618	12,823
	실업자훈련	72.91	73.62	63.45	62.77	606	530	598	489	12,032	13,883	10,618	12,823
	재직자훈련	-	-	-	-	-	-	-	-	-	-	-	-
일본	전 체	11.82	13.48	14.29	12.42	-	-	-	-	-	-	-	-
	실업자훈련	11.82	13.48	14.29	12.42	-	-	-	-	-	-	-	-
	재직자훈련	-	-	-	-	-	-	-	-	-	-	-	-
네덜란드	전 체	11.81	13.54	11.09	11.78	234	275	292	310	5,047	4,928	3,800	3,805
	실업자훈련	9.84	11.15	9.24	9.12	94	109	108	112	10,514	10,249	8,555	8,170
	재직자훈련	1.97	2.39	1.85	2.66	140	166	184	198	1,402	1,440	1,006	1,343
스페인	전 체	-	7.23	8.41	8.15	-	1,762	1,853	2,601	-	410	454	313
	실업자훈련	-	0.60	0.56	0.58	-	339	362	277	-	177	155	210
	재직자훈련	-	6.63	6.17	5.82	-	1,422	1,491	2,325	-	466	414	250
스웨덴	전 체	10.79	11.64	7.10	6.29	199	166	125	104	5,418	7,012	5,658	6,076
	실업자훈련	10.55	11.40	6.87	6.29	172	141	107	104	6,142	8,106	6,426	6,076
	재직자훈련	0.24	0.24	0.23	-	28	25	19	-	862	955	1,234	-
영국	전 체	9.97	7.29	7.15	-	139	149	150	-	7,187	4,897	4,766	-
	실업자훈련	8.54	5.83	5.72	-	124	131	132	-	6,877	4,440	4,321	-
	재직자훈련	1.42	1.46	1.43	-	0	18	18	-	-	8,325	8,102	-
미국	전 체	34.88	36.83	39.24	40.57	1,083	829	-	1,416	3,219	4,440	-	2,866
	실업자훈련	34.88	36.83	39.24	40.57	1,083	829	-	1,416	3,219	4,440	-	2,866
	재직자훈련	-	-	-	-	-	-	-	-	-	-	-	-
한국	전 체	3.81	4.47	4.15	3.38	1,000	1,153	1,486	1,794	381	387	280	188
	실업자훈련	2.22	3.65	2.77	1.69	333	363	259	233	667	1,006	1,069	725
	재직자훈련	1.59	0.81	1.38	1.69	667	790	1,227	1,562	238	103	113	108

주: 1) 1인당 훈련비용은 2002년도 7월에 발간된 OECD Employment Outlook의 부록에 있는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GDP 대비 공공지출비용 비율과 전체 노동력 대비 프로그램 참가 비율에 대한 통계표를 가지고, 각 국가의 GDP와 노동력을 대입하여 계산한 것임.

2) - 표시는 자료가 없거나 수치가 기준 단위보다 작은 것임.

자료: OECD(2002a).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자료: OECD(2002b). Labour Force Statistics 1981-2001. Paris: OECD.

자료: OECD(2002c). Main Economic Indicators. Paris: OECD.

4. 직업의식과 기업문화의 변화와 전망

- 최근에 보여지고 있듯이 기업구성원들의 충성심과 몰입도가 떨어지고 전통적인 대기업으로부터 핵심인력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데, 이는 외환위기의 충격이후 급격한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직업관과 기업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음.
-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이 강하여 자신이 좋아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변화와 기여한 바에 대하여 확실한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외부압력에 의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확산 일로에 있다가 지식정보화, 디지털화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생 직장의 개념이 퇴색하고 능력과 보수가 중시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안정적 직장으로 인정받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외국계 기업을 선도로 호칭, 직급파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함.
- 결국 디지털 경제화로 압축되는 지식정보화는 직장 및 직업에 대한 인식, 취업선호도 등을 변화시키고 기업에서도 실력주의, 유연고용 및 업무의 외주화 등 유연전략의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하에서는 빠른 기술진보와 이로 인한 생산 및 소비방식 변화 등 기업외부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대다수 기업이 조직과 고용관행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우선 기업의 조직이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피라밋 조직에서 유연한 수평조직으로 변화되고, 팀(team)간의 네트워크가 중시될 것임.
 - 인력관리도 명령, 통제적인 관리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이고, 의사소통도 하향식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
 - 더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무 및 영업직의 경우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로

가 활성화되는 등 근무형태 역시 다양화 될 것이며, 이밖에도 근로시간에 있어 단시간근로, 탄력적 근로(flexible working time) 등으로 다양해질 것임.

- 아울러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종전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내 업무가 종전보다 더 표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종전에 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하던 고용관행이 외부노동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상용직 근로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향후에는 상용직 근로자 보다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의 고용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II-9> 시장과 기업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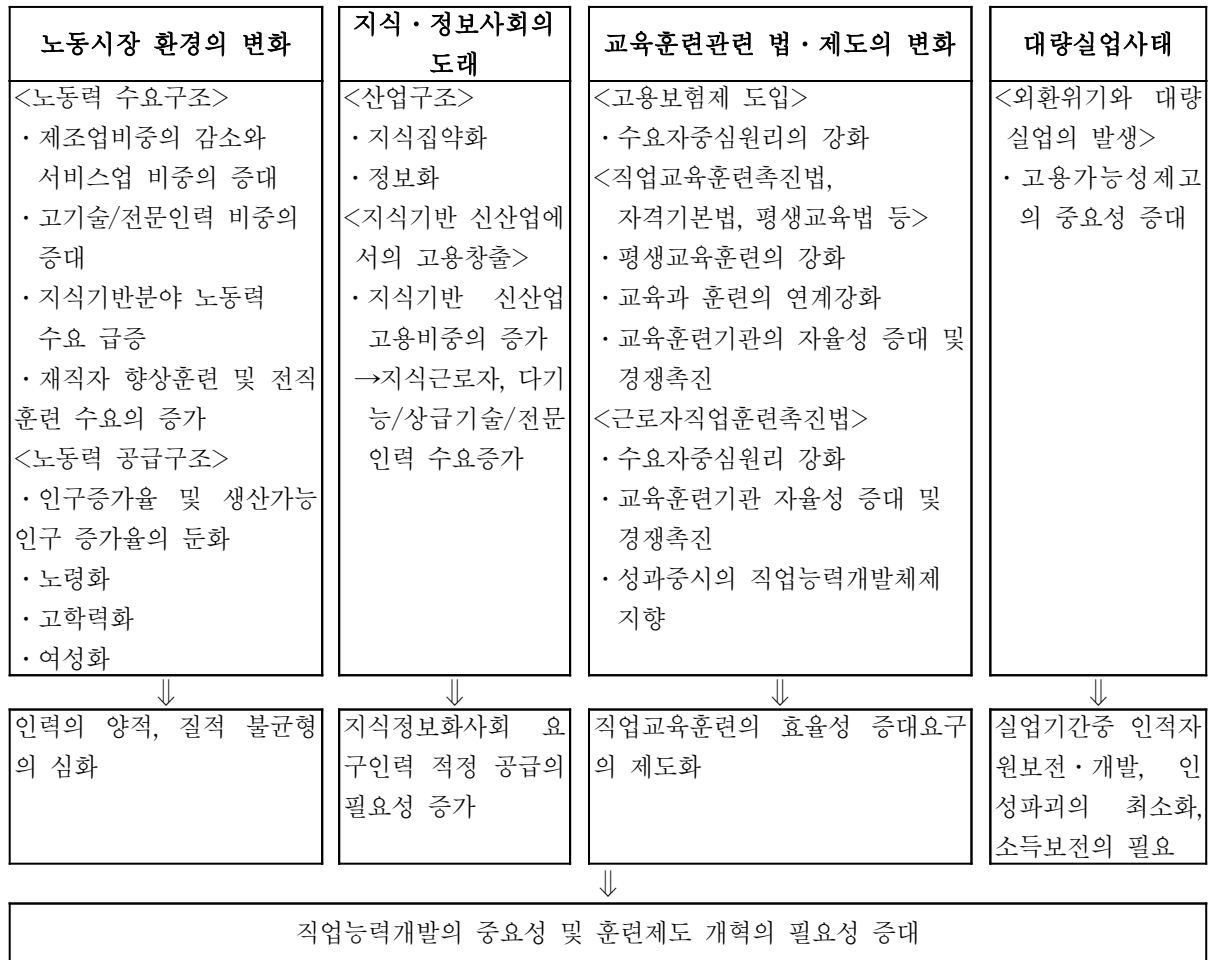
요 소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
변화동인	기계엔진(동력)	디지털 기술(정보처리)
고용	man power 평생직장	human capital(intellectual capital) 평생직업
생산방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다품종소량생산, 적기(JIT)생산을 통한 재고감축
판매방식	대규모 시장과의 근접	E/C를 통한 one-to-one 마케팅
작업장 조직	위계적 기능적이고 특화된 경직	수평적 다기능 팀간의 네트워크 유연
작업 범위	좁다 한가지 작업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표준화	넓다 많은 작업 복수의 책임
노동자 숙련	단순 또는 특화	다기능
노동력 관리	명령/통제 시스템	자기 관리
의사소통	하향식(top down)	광범위하게 분산
의사결정의 책임	명령 체계	분권화
디렉션(direction)	표준화되고 고정적인 절차	일정한 변화하에서의 절차
노동자 자율성	낮다.	높다
조직에 대한 노동자 지식	좁다	넓다

자료: 조윤애 “지식기반경제와 여성”,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9 및 “디지털 경제”, 미발표 논문(2000)에서 인용·수정보완.

5. 환경변화의 함의

- 앞서 논의한 직업훈련 투자환경의 변화는 다음의 [그림 II-2] 에서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음.

[그림 11-2] 직업훈련 투자환경의 변화



○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 직업훈련산업의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와는 달리 경기변동과 훈련수요의 변화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임.
-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직업훈련의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킬 것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변화에 따른 이러한 훈련수요의 증대효과는 과거와는 달리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지향하는 바대로 직업훈련산업의 확대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민간 훈련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것이고, 이러한 민간훈련기관의 이윤은 경기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후 직업훈련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직업훈련 제도의 변화와 시장환경의 변화가 주는 가장 커다란 함의 중의 하나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서의 경직적인 직업훈련의 운영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음.
- 향후 직업훈련의 운영에서는 훈련수요자가 훈련공급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훈련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잠재적인 훈련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의 확보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는 직업훈련 공급 측면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미래의 직업훈련에서는 개인의 역할과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개입도 개인의 인적자본투자 결정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직업훈련에서의 조사 및 연구의 확대가 직업훈련의 성과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교육훈련 자원 및 기간, 그리고 운영주체에 있어 차별화되어 있으나, 향후 이러한 차별은 무의미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중복성의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직업교육의 직업훈련화와 직업훈련의 직업교육화가 진전될 것임.

- 지식기반화가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과거와는 달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띠게 됨.
- 이러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을 길러내는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교육과 훈련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일 수 밖에 없음.

○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에 있어

서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 서도 설명하였듯이 조사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를 정착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임.
- 이러한 성과평가의 제도화는 정책실패 내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실패요인을 조속히 발견하고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과제임.

Ⅲ. 선진국의 직업훈련 동향

- 선진국의 직업훈련체제는 그 국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경제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선진국들은 공공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직업훈련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과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직업훈련 분야 주요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동향을 대표적인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 방향과 관련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1. 미국

- 미국의 직업훈련 체계(이상일, 1998)
- 미국의 직업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실업계 과정과 2년제 초급대학을 비롯하여 기술계통의 각종 대학에서 직업과 관련되어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말하는 것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직업훈련으로 규정하는 신규 학졸자 직업훈련, 재직자 직업훈련 및 이·전직자 직업훈련 등은 미국에서는 직업훈련법이 아니라 직업교육법에서 다루고 있음(김문각·김순원, 2002).
- 반면 직업훈련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이외의 청소년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 직업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능 또는 기술습득에 필요한 체계적인 강의와 실기교육을 말함. 직업훈련은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주 차제적으로 실시하는 주 직업훈련,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실직자, 저소득 또는 비진학청소년, 재활대상자

등 취약계층과 특수계층(예를 들어 군인 등)이 주류를 이루며,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 대부분임.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적 추세

-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은 빈곤가구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외에는 체계적인 공공직업훈련제도가 없음. 또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의 경우는 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1980년대부터 연방정부 주도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일반고등학교, 지역사회대학, 사립 기술대학, 노동조합, 산업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
-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직업훈련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많았으나, 직업교육기관(학교)에서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기 보다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서로 통합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이상일, 1998; 신명훈, 2002).

○ 직업교육훈련 운영체계의 특징: 지방분권과 민간·공공 협조체제

-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주정부 역시 각 지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권한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여 중앙보다는 지역의 독자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나 주정부는 재정적 지원 외에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감독함.
- 민간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는 민간—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일례로 1983년부터 시행된 직업훈련파트너십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에서는 각 지방의 민간산업협의회가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이나 비영리조직 등에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탁하도록 하여 직업훈련에 산업체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음.

○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시행

- 주 인력투자위원회 및 지방 인력투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수준에서의 설계·운영, 원스탑서비스, 개인훈련계정(이용자에 의한 훈련프로그램 선택), 훈련기관의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인정 등의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인력개발제도(1998년부터 시행).
- 인력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직업교육훈련은 관련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기업, 노동단체 및 지역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각 주 및 지방에 이들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와 청소년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됨.

○ 지역전문대학(Community Colleges) 운영

- 지역전문대학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2년 교과과정으로 청소년 고용교육 및 성인평생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주 및 지방자치체의 기금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단과대학으로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술교육이나 시민강좌, 취미강좌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함.
- 지역전문대학은 지역의 기업이나 산업계와 지역전문대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지역의 기업이나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설정하거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음. 기업이 기업내훈련을 지역전문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특정 교육과정에 다니게 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지역전문대학으로부터 강사를 파견 받아 기업 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며, 반대로 기업의 실무자가 지역전문대학의 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같은 지방분권과 민간·공공 협조체제를 통하여 미국의 직업훈련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2. 영국

○ 영국 직업훈련체제

- 양성훈련: 의무교육을 마치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동력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 및 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현대도제제도와 국가훈련생제도가 있음.
- 실업자훈련: 기술을 향상하여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실업보험의 구직자 수당 수급과 연결되어 있음.
- 계속훈련: 고용상태에 있거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업내훈련을 의미함.
- 뉴딜: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
- 이 중 기업내훈련이 다수를 이루는 계속훈련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며, 계속훈련은 세제혜택, 훈련비용 대부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영국은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약한 자유방임형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산업 현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직업훈련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민간 전담기구: 훈련기업위원회

- 산업체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정부와 위하여 기업의 파트너십의 매개기구로서 기업 대표, 교육·훈련·경제단체 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민간 훈련기업위원회(TEC: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가 조직되어 이들로 하여금 지역의 경제개발과 지역 기업들의 훈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고혜원, 2001).
- 훈련기업위원회는 정부, 기업, 훈련생, 그리고 훈련기관의 중앙에 위치하여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훈련 관련 업무 조정, 지역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급전망과 기술수요를 조사 및 이에 바탕한 훈련계획 수립, 지역수요에 맞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과 훈련의 공급과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짐(김희연,

2002).

-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훈련기업위원회는 지역별로 정부지역사무소와 훈련 항목에 대하여 매년 계약조건을 협의하면서 정부와 운영계약을 맺음. 더불어 기업, 비영리단체, 계속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민간훈련기관 등과 훈련 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음(고혜원, 2001).

○ 훈련기업위원회를 대체하는 통합적인 새로운 공공 훈련전담기구 발족: 학습기술위원회

- 훈련기업위원회가 직업훈련의 전달체계의 핵심으로 기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는 분절적인 데다가 통합된 지출내역을 관리하지 못하였고, 이윤추구로 인하여 장기실업자나 취약계층을 직업훈련에서 배제하고 지역간 격차도 벌어졌다는 비판(김희연, 2002)과 민간 부문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고혜원, 2001).
- 이에 정부는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Skill Council: LSC)라는 공공기구를 설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재정지원체계도 통합함.
- 학습기술위원회는 직업훈련체제를 평생학습훈련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총괄하며, 훈련기업위원회의 문제점인 지역별 훈련프로그램과 재정지원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학습기술위원회는 지역차원에서 훈련교과과정 및 현장교육과정 개발, 훈련기관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수행
- 재정지원방식도 훈련의 결과—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등—to 따라 재정지원을 달리하는 성과연계적 재정지원방식으로 함.

○ 직업훈련에 있어서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조

- 영국은 산업계의 요구와 지역사정을 반영한 현장기반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업훈련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훈련과정은 사업체의 직무기준을 반영하여 각 산업별, 직업분야별로 직무기준을 표

준화하고, 이를 직업교과과정과 훈련과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정영순, 2002).

3. 일본

- 일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자 전 사회구조를 평생학습사회의 구조로 변화시키고자 함. 특히 기업이 전담하여 왔던 직업능력개발을 공공부문과 역할분담하고, 대학과 지역의 학습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김득영, 2003).
- 일본의 직업훈련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훈련주체에 따라 크게 사업내훈련, 공공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김주섭, .
 - 사업내훈련은 기업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공공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직업훈련의 제공자가 되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여 학교 졸업자(양성훈련), 전직자 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향상훈련, 재훈련)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 인정직업훈련은 사업주(단체), 직업훈련법인, 노동조합,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노동성에서 설정한 훈련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하는 훈련을 말함.
- 일본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종류와 주 훈련 분야
 -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은 노동성의 고용·능력개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차원에서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종류 및 이에 따른 주요 훈련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김문각·김순원, 2002; 김득영, 2003).
-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1개교):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수행 등

- 직업능력개발대학교(7개교):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실무경험자를 대상으로 2년 과정의 높은 수준의 전문과정의 직업훈련 실시, 또 전문과정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의 응용과정의 직업훈련 실시, 재직노동자·이전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의 직업훈련 실시 등
 -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10개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실무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년 과정의 수준 높은 전문과정의 직업훈련 실시, 재직노동자·이전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의 직업훈련 실시 등
 - 직업능력개발학교(223개교):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일반 직업훈련 실시, 재직노동자·이전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의 직업훈련 실시 등
 -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60개소): 재직노동자·이전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의 직업훈련 실시 등
 -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19개교): 장애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 실시 등
- 일본 직업훈련 동향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공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 민간 부문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이해관계자간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임(Shigemi, 2003; 김득영, 2003).
- 직업훈련과 공공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김득영, 2003)
-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학교의 모집과 신청을 담당하며,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입학자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하며,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활성화로 인한 투자 증대(Shigemi, 2003)
- 고등학교, 대학 등을 졸업하였지만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직업훈련이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들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는 바, 취업과 연계된 보다 전문화된 훈련을 위하여 2002년도 4천명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지

원하기 위하여 8억 8천만엔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행함.

- 인정직업훈련을 중심으로 공식, 비공식적 형식의 기업의 사외훈련과 근로자의 자기 개발 확대를 꾀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의 조정을 통한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과 운영(Shigemi, 2003)

- 최근 일본에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유연하고 전문적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산업구조개혁청과 국회사무소 고용청의 정책에 기초하여 보건부, 노동복지부의 관리 하에 “인적자원 개발 주요 정책방안”이 수립되고 있음.
-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행정 등을 연계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조정·자문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인적자원개발총회”를 발족하여 산업체, 정부, 대학, 대학원,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하여 계속교육 및 경력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산업체, 대학·대학원, 비영리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산업체, 대학·대학원을 활용하여 성인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지역별 직업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4. 호주

○ 호주 공공직업교육훈련체제

- 기술전문대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은 각종 직업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등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교육기관으로 호주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TAFE는 기술기능 양성교육훈련에서부터, 재교육훈련, 향상교육훈련 등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TAFE의 교과목은, 교양교육에서부터 피부미용, 식품·음료서비스, 자동차, 경비행기 조종과정, 치기공, 영화·사진예술, 여행, 공학,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음.

- TAFE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직업전문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기능대학 수준에서 행해지는 모든 훈련과정 및 기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변화: 경쟁 원리의 도입

- 호주의 직업훈련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지방분권적 특성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개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시장경쟁과 영리성을 도입하고, 직업교육훈련과 교육이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이정표, 2003; 채창균, 2001).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시장경쟁 원리 도입에 따라 일부 재원이 민간 기관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TAFE 등의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은 이를 놓고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경쟁하도록 했음. 이는 민간기관과의 경쟁으로 교육훈련 수요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직업교육훈련과 일반교육의 통합 경향은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반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결합시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훈련의 성과를 평가할 때 훈련생수, 훈련시간 등과 같은 투입 측면보다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자격, 기술, 능력 등과 같은 결과를 중시함.

○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정책 추진 체제 구축

-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 조직 및 기구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히 제시하여 추진체제를 정비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직업훈련 담당 장관 모임인 직업교육훈련장관회의(MINCO: Ministerial Council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인데, 여기서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상위 결정기구인 고용·교육·훈련·청소년 관계장관회의(MCEETYA: Ministerial Council for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의 결정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채창균, 2001; Tom Kamel, 2002).

-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방/주/준주장관이 구성하는 ‘호주국립훈련원(ANTA: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을 설치하여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국가 목표와 우선성, 전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원 조달을 담당함.
- 산업, 기업, 그리고 노조 대표로 구성된 산업자문위원회(ITABs: Industry Training Advisory Boards)에서 연방 차원뿐만 아니라 주(State/Territory) 차원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특정 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직업훈련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음. 이는 직업교육훈련에 산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최근의 주요 공공직업훈련제도: Training Package(강경중·김종우, 2002)

- Training Package란 교육훈련 및 직업능력의 인증, 평가를 위하여 산업체에서 개발되어 국가적으로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을 말함.
- 직업훈련으로 육성된 인력의 실수요자인 산업체에 의한 직업훈련 개발, 능력중심의 교육과정, 능력표준에 기초한 체계적인 평가지침 제시, Training Package에 기초한 자격부여 등을 특징으로 함.
- Training Package는 전체적인 직업교육훈련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업체와의 연계, 자격과의 연계, 수직적 연계가 모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주요 공공직업훈련제도: 신도제제도 (New Apprenticeships)(강경중·김종우, 2002)

- 신도제제도는 기존의 도제제도와 훈련생제도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이 제도의 특징은 전일제 및 시간제 근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광범위한 산업 분야 및 직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능력위주의 훈련체제 지향, 고용주·도제·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점임.
- 신도제제도는 수요자와 산업체의 원활한 짝짓기를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신도제제도 센터’를 설립하여 대상자들에게 ‘One-Stop-Service’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최근 특징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은 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정책을 연구, 개발, 결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다양한 훈련기관 그리고 훈련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꾀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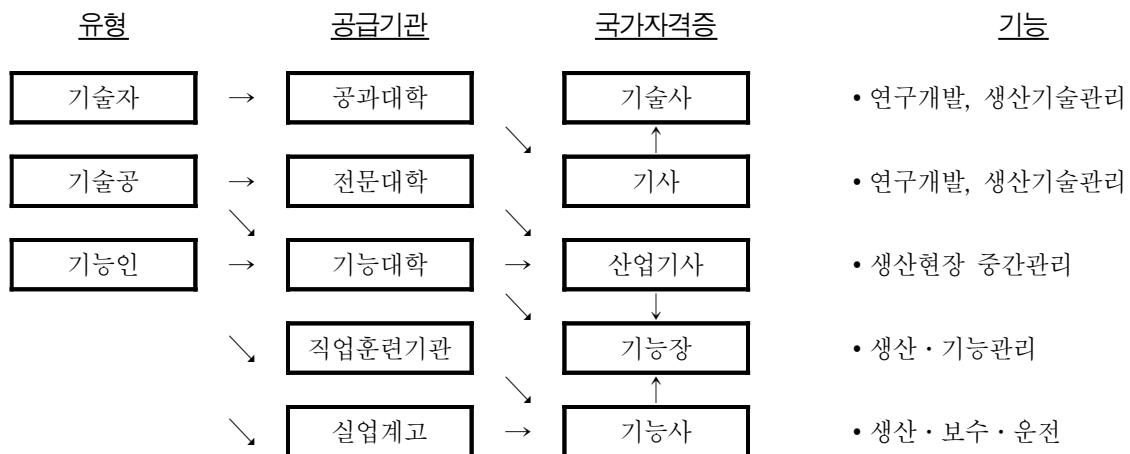
IV. 공공직업훈련 개관

1. 기능인력 양성과 공공직업훈련

○ 기능인력 양성 체계

- 산업기능인력을 역할 유형에 따라 기술자, 기술공, 기능인으로 나누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인력 공급체계는 다음의 [그림 IV-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연구개발이나 생산기술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자와 기술공은 일반 공과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에서 주로 양성하며, 생산현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나 생산관리 및 기능관리, 생산·보수·운전 등을 담당하는 기능인은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양성함.
-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실기 및 실습 위주의 훈련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도기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교사를 전문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있음.

[그림 IV-1] 우리나라 기능인력 공급체계



출처: 김주섭, “직업훈련 환경변화의 중장기전망과 대응의 방향: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 2001/2002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발표논문. 2001.

○ 공공직업훈련의 의미

- 공공직업훈련(public vocational training)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직업훈련법인이 실시하는 숙련된 다능공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규 훈련방식의 직업훈련 형태를 말함. 여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이 포함됨.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함.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설치·운영하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등을 들 수 있음.

○ 공공직업훈련기관 설립 현황

- 2002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기관은 48개소, 민간직업훈련기관은 3,1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남(<표 IV-1> 참조).
-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21개교,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운영하는 기능대학 23개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8개 기관 등을 들 수 있음.

<표 IV-1>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소)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공공 훈련 기관	소계	95	52	53	48
	직업전문학교	21	22	21	21
	기능대학	21	21	23	23
	대한상공회의소	8	8	8	8
	장애인공단	2	-	-	-
	기타	43	1	1	2
민간 훈련 기관	소계	3,126	2,540	2,801	3,142
	훈련법인	77	84	77	119
	여성인력개발센터	44	24	46	45
	노동부 지정시설	501	278	138	372
	지정시설 외 훈련기관	2,504	2,154	2,540	2,600

자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2003.

○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과정 개설 현황

- 공공직업훈련기관인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인력개발원 등의 훈련과정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2>와 같음.
- 기능사양성 1년 과정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인력개발원과 함께 기능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사양성 2년 과정은 인력개발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다기능기술자양성 과정과 기능장양성 과정은 기능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그 외 능력개발훈련, 실업대책훈련, 주문식훈련 등이 여러 행태의 훈련과정을 통하여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음.

<표 IV-2> 공공훈련기관 훈련과정 비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인력개발원
일반양성훈련	기능사양성(1년)	○	○	○
	기능사양성(2년)			○
	다기능기술자양성	○		
	여성특별훈련		○	
능력개발훈련	기능장 양성	○		
	군전역예정장병		○	
	귀순동포 훈련	○		
	재직자 향상훈련	○	○	○
실업대책일반훈련	기능사 특별훈련	○		
	창업훈련	○	○	○
실업대책위탁훈련	실업자재취직	○	○	
	고용유지훈련	○	○	
	고용촉진훈련		○	
주문식훈련	일반위탁훈련	○	○	

출처: 김주섭, “직업훈련 환경변화의 중장기전망과 대응의 방향: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 2001/2002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발표논문. 2001.

○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루게 될 공공직업훈련기관의 범위

-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과 관련한 이 연구에서는 23개 기능대학, 21개 직업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은 비록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운영 주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훈련기관을 인수하여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직업훈련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대학이며, 산업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한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있어 훈련교사 양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 R&D 기능, 직업훈련교사 재교육 등 공공직업훈련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임.

2. 공공직업훈련기관

가. 직업전문학교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직업전문학교의 설립배경 및 설립과정

- 정부는 1982년 기술인력 양성 및 직업안정의 활성화와 공공직업훈련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훈련과 기능검정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설립하였음.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1991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직업훈련원을 설립하면서 공공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음.
- 1993년 「직업훈련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직업훈련원의 명칭이 ‘직업전문학교’로 바뀌었으며, 당시 ‘신경제’ 정책에 따른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따라 1994년~1997년 사이에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분리되어 19개 기능대학과 22개 직업전문학교로 나뉘어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직업전문학교’를 관할하고, 기능대학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이관하게 됨.
-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인력 양성 및 취업지도,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설립,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과 관리, 직업훈련 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자격검정 실시 및 자격취득자 관리, 기능권장사업 시행, 국내외 취업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서울경인지역, 충청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표 IV-3> 참조), 산하에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기능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음.

<표 IV-3> 직업전문학교 설립 현황

지역	학교(소재지)
서울경인지역(6개)	인천, 강릉, 정선, 경기(화성), 원주, 강원(춘천)
충청지역(3개)	충주, 충북(충주), 충남
영남지역(7개)	한독부산, 경북(대구), 포항, 영주, 김천, 진주, 한백창원
호남지역(5개)	익산, 전북(남원), 순천, 전남(광주), 제주

○ 직업전문학교의 1년제 기능인력 양성과정으로의 개편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직업훈련체제가 개편되면서, 기능대학은 다기능 기술자 및 기능장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직업전문학교는 기능사 양성훈련, 재직근로자의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음.
- 직업전문학교는 매우 다양한 형태 및 수준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즉 기능사 양성훈련뿐만 아니라 실업자 재취직훈련, 고용유지훈련, 고용촉진훈련, 주문식훈련 등도 실시하며, 중고등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훈련도 실시함.
- 직업전문학교가 비록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1년 과정의 기능사 양성이 직업전문학교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과정의 교육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복 등을 포함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함.

○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양성과정 공과 및 직종 현황

- 21개 직업전문학교에는 전자통신, 정밀기계, 산업설비 등 전체 20개 공과에 54개 직종에 걸쳐 모두 186개 직종에 대한 기능사 양성 과정이 설치되어 있음(<표 IV-4> 참조, 학교별 설치 학과 현황은 부록 참조).
- 산업설비, 정밀기계, 전기제어, 전자통신 등이 가장 많은 세부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과였으며, 정밀기계 공과의 CNC선반(15개 학교), 머시닝센터(12개 학교), 컴퓨터응용기계(10개 학교), 전기제어 공과의 전기공사(13개 학교), 산업설비 공과의 특수용접(11개 학교) 등이 가장 많은 학교에 설치된 직종으로 나타났음.
- 직업전문학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에 대처하고자 지식기반 직종을 신설하고 있음. 다음의 <표 IV-5>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2년도에는 제품응용모델링, 정보통신시스템, 시스템 제어 등 9개 직종의 지식기반 직종을 신설하였음.

<표 IV-4>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양성과정 설치 학과 현황

공과	직종
건축시공(1)	철근콘크리트(1)
귀금속공예(3)	귀금속가공(2), 보석가공(1)
금속(2)	정밀주조(1), 주조(1)
금형(3)	사출금형(1), 프레스금형(1)
냉동기계(1)	공조냉동기계(1)
도장(1)	금속도장(1)
모델링(3)	제품응용모델링(3)
산업설비(39)	건축설비(2), 건축환경설비(6), 에너지설비(3), 열냉동설비(7), 전기용접(1), 자동화용접(8), 특수용접(9), 수중용접(1), 플랜트배관(1), 플랜트설비(1)
생산자동화(5)	시스템제어(2), 전산응용기계가공(1), 전산응용기계제도(1), 전산응용프레스금형(1)
재료시험(1)	비파괴시험기기운용(1)
전기제어(29)	전기계측제어(9), 전기공사(13), 전기기기(4), 전기시스템제어(2), 전력전자(1)
전자통신(25)	공업전자(7), 전자기기(4), 전자통신(8), 정보통신시스템(5)
정밀기계(40)	머시닝센터(12), 메카트로닉스(2), 생산가공(1), 컴퓨터응용기계(10), CNC선반(15)
출판인쇄(2)	스크린인쇄(1), 컴퓨터출판디자인(1)
카일렉트로닉스(16)	동력기계제어(1), 자동차정비(6), 카일렉트로닉스(9)
컴퓨터응용(10)	멀티미디어(4), 컴퓨터산업디자인(4), 컴퓨터애니메이션(1), 관광상품디자인(1)
표면처리(3)	반도체표면처리(1), 전기도금(1), 특수도금(1)
호텔운영(1)	호텔운영시스템(1)
관광게이밍(1)	관광게이밍운용(1)

주: ()은 개설 학교수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표 IV-5> 2002년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양성과정 지식기반 직종 설치 현황

지역	학교명	신설 직종
서울경인지역	인천	컴퓨터출판디자인, 멀티미디어, 제품응용모델링
	강릉	정보통신시스템
	원주	멀티미디어
	강원	제품응용모델링
충청지역	충북	멀티미디어, 제품응용모델링
	충남	시스템제어
영남지역	경북	시스템제어, 정보통신시스템
	김천	정보통신시스템
호남지역	순천	정보통신시스템, NDE기기운용
	전북	정보통신시스템, 카일렉트로닉스, 멀티미디어
	전남	카일렉트로닉스, 컴퓨터애니메이션
전체	11개 학교	9개 직종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02학년도 기능사양성 1년과정 학생모집실적 종합결과보고서」. 2002. 5.

○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 현황

-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양성 1년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은 매년 90%를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다음의 <표 IV-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취업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2000년 98.4%, 2001년 96.8%, 2002년 97.3% 등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졸업자 가운데 진학자, 입대자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대상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직업훈련 종료 후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진학을 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졸업생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취업대상인원이 1997년 81.7%에서 1998년 74.9%, 2000년 62.1%, 2002년 57.4%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표 IV-6>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연도	졸업생수(A)	취업대상인원(B)	B/A×100	취업인원	취업률(%)
1996	7,828	7,828	100.0	6,783	86.7
1997	6,279	5,128	81.7	5,111	99.7
1998	6,343	4,751	74.9	4,551	95.8
1999	7,592	4,436	58.4	4,007	90.3
2000	7,331	4,550	62.1	4,479	98.4
2001	7,074	4,206	59.5	4,072	96.8
2002	7,442	4,680	62.9	4,553	97.3
2003	6,952	3,993	57.4	3,782	94.7

자료: 노동부(2002).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직업전문학교의 입학자원 감소

- 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크게 대두하고 있는 문제점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입학자원이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임. 관련 연구에 따르면 향후 고교 졸업자수에 비하여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정택수 외, 2000).¹⁾
- 기능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하여 정식

1) 비록 입학자원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고등학교 중도탈락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임(김주섭 외, 2002).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학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입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직업전문학교에서의 기능사과정 이수를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는 점차 입학자원의 감소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김주섭 외, 2000).

-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직업전문학교의 입학 미달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입학경쟁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공과 및 직종에서는 이미 입학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 직업전문학교의 입학 미달 상황은 향후 학령 인구의 감소, 상대적으로 확대된 대학 진학 기회 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 과잉인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김주섭 외, 2002).

나. 기능대학

○ 설립 배경

-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진전되고 기술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 기능인력으로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함.
- 이에 현장 근로자들을 통솔·지도·관리하고, 상위 기능을 전수하며,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관리 계층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계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독일식 기능장(Meister) 제도를 벤치 마킹함.
- 정부는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능장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당시 자격제도를 관장하던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였고, 1980년 최초로 창원기능대학 설립하여 기능장 양성을 도모함.
- 그러나 기능장 입학생의 기술 종목과 수준이 다양한데다 수학 능력의 편차가 커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현장 경력이 부족하여 졸업할 때까지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기본자격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기능장 자격 취득이 저조하여, 의도했던 만큼 기능장 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못함(김덕호, 1997; 서상선, 2002).

○ 기능대학 체제 개편

- 1990년대 들어 독일식 기능장 양성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년)에 따른 새로운 산업인력정책에 맞추어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하면서 기능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됨.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능대학의 목표를 기능장 양성에서 다기능 기술자(테크니션(technician), 기능공 또는 중간기술자) 양성으로 전환하고 기능대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음. 전문대학에서 배출하는 기능 인력의 규모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비하여 부족하여 기능대학의 인력양성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김덕호, 1997).
- 기능대학 설립은 공공직업훈련원 가운데 시설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소재한 훈련원을 우선적으로 개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음. 기능대학에서는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 양성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실시하고, 나머지 직업전문학교에서는 1년제 기능인력(기능사) 양성을 중심으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및 재훈련, 그리고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함.
- 한편 기능대학에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능장 양성훈련은 단계적으로 야간과정으로 전환하고, 주간과정은 2년 과정의 다기능 기술자 양성과정으로 운영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에게는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함. 이에 따라 기능대학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일종의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 기술자 과정은 산업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정식 학위과정이 됨.
- 노동부에서는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전국의 기능대학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며, 기능대학의 설립 및 인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관계법에 따라 담당함. 다음의 <표 IV-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국에 23개 기능대학이 설립되어 있음.

<표 IV-7> 기능대학 설립 및 개편 현황

연도	설립 대학	비고
1980	창원기능대학	기능장 양성 전담
1992	인천기능대학	중앙직업훈련원 개편
1994	대전, 광주, 대구, 성남, 안성여자, 서울시립기능대학	서울시립기능대학은 1999년 서울정수기능대학 강서 분교로 편입한 후 2002년 서울정보기능대학으로 변경
1995	부산, 전주, 청주, 구미기능대학	전주기능대학은 1995년 전북기능대학으로 변경
1996	홍성, 서울정수, 춘천, 목포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개편
1997	고창, 거창, 섬유기능대학	섬유기능대학은 2000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산하 섬유기술 대학과 통합하여 섬유패션기능대학으로 개편
1999	제천기능대학	
2000	울산기능대학	
2001	항공기능대학	
2002	아산정보기능대학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개설 현황

- 교육관계법을 따르는 정식 2년제 학위 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현재 23개 대학에서 6개 계열, 44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음(<표 IV-8> 참조, 대학교 학과 설치 현황은 부록 참조).
- 정보/전기·전자계열에는 전기과, 전자과, 전기계측제어과 등 13개과, 기계/금속계열에는 컴퓨터응용기계과, 컴퓨터응용금형과 등 8개과, 자동화계열에는 자동화시스템과, 메카트로닉스과 등 3개과, 건축/산업응용계열에는 산업설비과, 건축설비자동화과 등 5개과, 디자인/섬유계열에는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등 14개과, 그리고 항공계열에 항공기계과, 항공전자과 등 2개과가 있음.
- 정보화사회 및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기능대학 역시 기존의 제조업 등의 전통산업 중심의 학과 편제에서 컴퓨터게임과, 통신전자과, 컴퓨터정보과, 영상매체과 등 정보통신 및 지식기반 학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²⁾

2) 기능대학의 지식기반산업 관련학과 개편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신범석 외(2000) 참조.

<표 IV-8> 기능대학 설치학과 현황

계열	학과
정보/전기·전자	정보통신설비과, 전기과, 전자과, 전기계측제어과, 정보통신시스템과, 멀티미디어과, 광전자과, 반도체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정보과, 영상매체과, 통신전자과
기계/금속	컴퓨터응용기계과, 컴퓨터응용금형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정밀계측과/나노측정과, 기계정비과, 자동차과, 재료과/컴퓨터응용금속과, 카일렉트로닉스과
자동화	자동화시스템과, 메카트로닉스과, 플랜트설비자동화과
건축/산업응용	건축과, 환경화학과, 산업설비과/산업설비자동화과, 건축설비자동화과, 인테리어디자인과
디자인/섬유	시각디자인과,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산업디자인과, 귀금속공예과, 인쇄매체과, 패션디자인과, 텍스타일디자인과, 섬유소재생산과, 섬유소재가공과, 패션메이킹과, 패션마케팅과, 섬유경영관리과, 섬유소재설계과, 인터넷미디어과
항공	항공기계과, 항공전자과

○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 현황

-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매년 100%에 이르는 등 기능대학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수요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표 IV-9> 참조). 다만 졸업생 가운데 입대, 진학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대상 인원의 비율이 50%대에서 80%대까지 매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기업체의 기능대학에 대한 구인요청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능대학 졸업생에 대한 기업체 인력 수요가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이처럼 기능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기능대학의 실습 및 실기 위주의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인하여 기업체에서는 전문대 졸업생에 비하여 기능대학 졸업생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학교법인 기능대학, 2001).

<표 IV-9> 연도별 기능대학 취업률 및 구인 요청률

연도	졸업생수	취업대상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구인요청률(%)
1997	2,016	1,419(70.4)	1,419	100.0	-
1998	2,599	2,108(81.1)	2,063	97.9	250
1999	3,152	2,205(70.0)	2,205	100.0	270
2000	3,918	2,143(54.7)	2,143	100.0	580
2001	5,039	3,100(61.5)	3,100	100.0	590
2002	6,193	4,019(64.9)	4,019	100.0	530
2003	6,674	4,323(64.8)	4,307	99.6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지표』, 2001.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2003.

기능대학 홈페이지(<http://www.kopo.or.kr>).

○ 기능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비판

- 기능대학 운영의 기본 방향은 국가가 지원하는 국책 특수대학으로서 공공성을 견지하고 국가의 직업훈련정책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것임.
- 그러나 높은 취업률이 공공성을 견지하고 국가의 직업훈련정책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이 양성하지 않거나 양성을 기피하는 분야의 인력 양성에 부합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음.
- 먼저 산업학사학위 수여와 관련하여 기능대학이 직업훈련의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일반 전문대학의 학교 교육형태를 모방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김주섭 외, 2001; 서상선 2002). 더불어 기능대학의 학과 구성, 교육내용, 취득자격, 취업분야 등에 있어서 일반 전문대학과 큰 차별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김주섭 외, 2002).

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설립배경 및 설립과정

-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기술수준의 고도화 등 산업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맞이하여 고급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필요하게 됨.

-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의 확충과 더불어 이들을 교육할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하게 됨. 즉 고도의 전문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하고 교수능력까지 갖춘 교사를 확보해야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기존의 공과대학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훈련교사 양성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게 됨.
- 1989년 7월에 대학설립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대학 설립에 착수하고, 1991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산업기계공학과 등 공학계열 8개 학과에 정원 240명의 한국기술대학 설립 인가를 받음.
- 1992년 2월, 교명을 한국기술교육대학(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ducation)으로 변경한 후 개교하였고, 1995년 9월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로 다시 교명을 변경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학부 학과 구성 및 정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과 및 입학 정원을 살펴보면(<표 IV-10> 참조), 1992년 개교 당시 8개 학과에 30명씩 총 240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 각 학과당 입학 정원이 10명씩 증원되었음. 1998년에는 5개 학과가 신설되어 모두 13개 학과에 40명씩 총 520명의 정원이 됨.
- 이후 지식경제 및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는 학부제로 개편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현재 675명 정원에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보기술공학부, 인터넷미디어학부, 산업경영학부, 교양학부 등 6개 학부와 5개 학과(제어시스템공학과,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는 영상정보 전공을 신설할 계획에 있음(노동부, 2003).

○ 대학원 설치 현황

- 1997년 생산현장에서의 기술 적응력과 응용력을 겸비한 교수 요원과 고급 생산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 2개 학과에 30명 정원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음. 2000년 디자인

공학과, 인력개발학과 증설, 2001년 건축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증설
현재 일반대학원에 총 7개 학과가 운영(<표 IV-11> 참조).

- 2003년부터는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인력개발학과, 석사과정 30명)과 산업대학원(산업기술공학과·산업경영학과, 석사과정 30명)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졸업생의 직업훈련교사로의 낮은 진출에 대한 비판

-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목표와 달리 직업훈련교사로 진출하는 졸업생이 적다는 것임. 직업훈련교사로 취업하는 대신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져 2001년도에는 일반 기업 취업률이 86%에 이르는 등 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퇴색했고 따라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가진 공공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특히 직업훈련교사 양성이라는 취지 하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재원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에서 30~4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훈련교사 양성의 부진함에 대한 비판이 있음.

<표 IV-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부 과정 학과 및 정원 현황

(단위: 명)

학과 연도	산업 기계	생산 기계	제어 기계	동력 기계	정보 통신	전기	전자	조형	기계 금형	컴퓨터	건축	금속 재료	응용 화학	산업 디자인	산업경 영학부	전체
1992	30	30	30	30	30	30	30	30								180
1993	30	30	30	30	30	30	30	30								
1994	30	30	30	30	30	30	30	30								
1995	30	30	30	30	30	30	30	30								
1996	40	40	40	40	40	40	40	40								320
1997	40	40	40	40	40	40	40	40								
1998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520
1999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90	630
2000	기계공학부(90명): 자동차·환경·에너지, 정보응용시스템 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90명): 시스템 디자인, 나노테크놀로지 전공 정보기술공학부(180명):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공 산업경영학부(90명): 인력경영, 기술경영 전공 제어시스템공학과 45명, 디자인공학과 45명, 건축공학과 45명, 신소재공학과 45명, 응용화학공학과 45명															675
2001	기계공학부(90명): 자동차·환경·에너지, 정보응용시스템 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90명): 시스템 디자인, 나노테크놀로지 전공 정보기술공학부(180명):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 전공 산업경영학부(90명): 인력경영, 기술경영, E-Business 전공 제어시스템공학과 45명, 디자인공학과 45명, 건축공학과 45명, 신소재공학과 45명, 응용화학공학과 45명															
2002	기계공학부(90명): 자동차·환경·에너지, 정보응용시스템 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90명): 시스템 디자인, 나노테크놀로지 전공 정보기술공학부(180명):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 전공 산업경영학부(90명): 인력경영, 기술경영, E-Business, Internet S/W 전공 제어시스템공학과 45명, 디자인공학과 45명, 건축공학과 45명, 신소재공학과 45명, 응용화학공학과 45명															
2003	기계공학부(90명): 자동차·환경·에너지, 정보응용시스템 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90명): 시스템 디자인, 나노테크놀로지 전공 정보기술공학부(180명):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미디어공학부(45명): 멀티미디어, 인터넷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전공 산업경영학부(90명): 인력경영, 기술경영, E-Biz 전공 제어시스템공학과 45명, 디자인공학과 45명, 건축공학과 45명, 신소재공학과 45명, 응용화학공학과 45명															

주: 1995년에 교양교직과가 설치되었으며, 2000년에 교양학부로 개편.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년사』, 20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ut.ac.kr>).

<표 IV-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반대학원 현황

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산업경영학과
전공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디자인공학	건축공학	신소재공학	응용화학공학	인력경영 기술경영 E-Biz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ut.ac.kr>).

V. 권역별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1.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

○ 4대 지역산업진흥정책

-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특정에 맞는 2~4개의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함.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지역산업진흥정책은 1999년부터 대구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 경남 기계산업, 광주 광산업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특화된 산업을 1개씩 선정하여 지역산업진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V-1>와 같으며, 현재 1차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와 있음. 특히 광주 광산업과 경남 기계산업에 대한 1차 지원사업의 결과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됨(<Box 1>과 <Box 2> 참조).

<표 V-1> 4대 지역산업 지원계획

구 분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光	경남 기계
사업기간	1999~2003	2000~2003	2000~2003	2000~2004
총사업비	6,800억원 (국비 3,670)	3,866억원 (국비 2,396)	4,020억원 (국비 2,353)	4,284억원 (국비 2,143)
주요사업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 등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지원	기계류 기술종합지원센터 등

출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

<Box 1> 광주 광산업

□ 사업 개요

- 기술집약형 신지식산업인 광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서남권 거점도시인 광주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
- 총사업비 : 4,020억원 (국비 2,353, 지방비 587, 민자 1,080억원)

□ 주요 성과

-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의 집적 가시화
 - 한국광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고등광기술연구소, ETRI 등 집적
 - 기업이전 및 신규창업 활성화 : '99년 47개→2002년 160개
 - ※ LG이노텍 등 대기업을 포함한 25개 기업 광주로 이전
- 인력양성 기반 구축 및 고급인력 유치 활발
 - 대학원부터 고교까지 정규교육과정에 광전공 및 학과 신설, 광관련 인력 수급을 위한 수직적 연계체제 구축 : 13개 과정, 1,036명
 - ※ 전국 1,412명 광전공자 중 광주가 966명으로 68% 점유
 - 산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 1,660명
 - 연구·지원기관에 275명의 고급인력 유입,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 매출과 고용증대, 기술력 향상으로 광주의 新성장산업으로 정착
 - 1999년 고용 1,900명, 생산 1,200억원 → 2002년 고용 4,900명, 생산 9,500억원
 - 광통신·LED 분야에 세계적 경쟁력 확보, 관련업체 집적·계열화
 - ※ 광분배기를 포함한 수동광부품은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수출개시
 - ※ LED는 LG이노텍 중심으로 계열화 진전, open fab등 지원 추진
 - ※ 누비텍은 우리나라 최초로 플라스틱 광섬유 개발에 성공

출처: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03. 7. 22.

<Box 2> 경남 기계산업

□ 사업 개요

- 기계 Techno-Belt에 집중 지원하여 기계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 및 수출전략 거점화로 육성

※기계 Techno-Belt : 양산-김해-창원-진주-사천

- 총사업비 : 4,284억원(국비 2,143, 지방비 844, 민자 1,297억원)

□ 주요 성과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한 외국기업 유치(2000년 이후) : 4개사, 407백만불
 - 한국경남태양유전 (일본, 331백만불, 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
 - 한국 J.S.T (일본, 32백만불, 압착단자?커넥터 생산)
 - EEW 성화산업 (독일·한국 합작사, 27백만불, 대구경후육장관 제조)
 - J.S.테크 (일본, 17백만불, 수탁 분체가공)
- 하노이 종합박람회 등 마케팅지원을 통해 11.5억불 판매계약 실적
- 현장특화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졸업작품 전시회 61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교육 412회 및 5,210명에 대한 산업체인력 재교육 실시
- 벤처 및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통해 430개사의 창업 및 68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함으로써 LG생산기술연구원 분원 및 삼성전자기술연구소 분소 유치
-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을 통해 (주)SFA(자동화시스템 제조) 등이 437억원, 신지식기계설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주)센트랄(자동차부품)이 1억불, (주)한국화이바(불연성소재)가 270억원 매출 기록

출처: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03. 7. 22.

○ 3개 권역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 산업자원부는 대구, 부산, 경남, 광주 4대 지역산업진흥정책에 이어서 2002년에는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을 3개 권역—대전·충청, 전라·제주, 울산·경북·강원—으로 나누어 2002년부터 5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포함하는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함(산업자원부, 2002).
-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IT, BT 등 미래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권역별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또한 발전 방향 및 지원사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표 V-2> 참조).
- 대전·충청권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 역점을 두며, 전자·생물(의학·화학·동물자원)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 전라·제주권은, 산업낙후지역으로 지역 산업발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청정자연 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방향 속에서, 자동차부품·기계·생물(자생식물·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 울산·경북·강원권은,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역내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집적지를 형성한다는 비전 속에서, 자동차·전자·생물(의료·환경·건강)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 산업자원부는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고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만 약 3조 1천억원에 달하는 생산과 3만 4천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산업자원부, 2002).

<표 V-2> 4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 지원계획

	대전·충청권	전자·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
전략산업	전자·생물	자동차부품·기계·생물	자동차·전자·생물
총사업비	3,149억원	2,813억원	2,855억원
주요사업	전자정보단지 조성 및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설립 등	오토밸리 설립 등

출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진

- 지역산업진흥정책은 단순히 산업자원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범 정부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 방안>에서 지역산업 정책 추진체제 개편,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융합 발전,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지역산업 구축 및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위의 4개 지역 및 3대 권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평가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a).
-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며, 인근 시·도를 포함하는 광역권역을 중심으로 지역내 항만권을 적극 활용하여 물류·유통 및 교류협력 시설을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b).
- 다음의 <표 V-3>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광역권·항만권과 전략산업과의 연계(안)임.

<표 V-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권·항만권과 전략산업과의 연계(안)

권역		전략산업
수도권	서울	의류패션,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인천	생물, 환경, 물류 산업
	경기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생물·환경(설비), 문화(출판·만화) 산업
강원·동해권		의료기기, 해양생물, 관광, 문화(애니메이션)
중부내륙권		
아산만권		석유화학,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대전·청주권		생물, 전자·정보기기 정보통신, 정밀화학, 문화(게임)
전주·군장권		자동차, 기계, 물류, 문화(디지털소리)
광주·목포권		광, 자동차, 가전, 생물, 문화(디자인)
제주도		생물, 관광
대구·포항권		섬유의류, 신소재, 기계, 전자정보기기
부산·울산·경남권		신발, 자동차, 기계, 조선,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물류, 소프트웨어
광양만·진주권		석유화학, 철강, 신소재, 생물, 항공우주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b.

○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체제 구축

-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은 기존처럼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조화 속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것임. 중앙정부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제도나 시책에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 각 시·도가 작성한 계획을 산업자원부가 종합 작성하도록 함.
- 지역별로 산학연의 협력제고 등 혁신역량을 발전시키는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등장.

2. 권역별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가. 권역별 전략산업

○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 산업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과 3개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권·항만권과 전략산업과의 연계안을 종합하여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권역 설정 및 전략산업은 다음의 <표 V-4>와 같음.

<표 V-4>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권역별 전략산업

권역	지역	전략산업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의류패션,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생물·환경, 문화
강원권	강원	의료기기, 생물(수산자원), 관광, 문화(애니메이션)
충청권	대전, 충남, 충청	정보통신, 전자정보기기·부품, 메카트로닉스, 생물(의화학, 동물자원), 보건의료산업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 기계, 자동차부품, 소재(석유화학, 철강), 생물(농업, 해조류), 문화(디자인), 관광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신발, 섬유,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디지털가전), 생물(건강식품, 환경), 기계

나.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 권역별 공공훈련기관 설립 현황

- 권역별 기능대학 설립 상황을 살펴보면, 영남권 7개 대학, 수도권 5개 대학, 충청권 5개 대학, 호남권 4개 대학, 강원권 1개 대학으로 설립되어 있음. 직업전문학교는 영남권 7개 학교, 호남권 5개 학교, 강원권 4개 학교, 충청권 3개 학교, 수도권 2개 학교로 분포되어 있음(<표 V-5> 참조).
- 수도권과 강원권역의 경우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설립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수도권에는 서울정수기능대학 등 기능대학은 5개인 반면 직업전문학교는 서울에는 1개 기관도 없으며, 인천직업전문학교, 경기직업전문학교(경기도 화성 소재) 등 2개 학교에 그침. 강원권에는 기능대학은 춘천기능대학 1개교뿐이며, 직업전문학교는 강원직업전문학교(강원도 춘천시 소재) 등 4개교가 있음.
- 충청권은 청주기능대학, 대전기능대학 등 기능대학 5개교, 충주직업전문학교 등 직

업전문학교 3개교 등 외형적으로는 비교적 균형적인 설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충북 충주에만 2개교, 충남 논산에 1개교 등으로 직업전문학교가 있는 지역이 2곳에 불과함. 한편 충청권에는 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남 천안시 소재)도 설립되어 있음.

- 호남권, 영남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공공직업훈련기관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호남권은 전북지역에 2개 기능대학과 2개 직업전문학교, 광주·전남지역에 2개 기능대학과 2개 직업전문학교가 있어서 모두 4개 기능대학과 4개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음. 영남권도 대구·경북지역에 3개 기능대학과 4개 직업전문학교, 부산·경남지역에 5개 기능대학과 3개 직업전문학교 등 모두 8개 기능대학과 7개 직업전문학교가 설치되어 있음.

<표 V-5>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권역별 설립 현황

	기능대학 (23개 대학)	직업전문학교 (21개 학교)	비고
수도권	서울정수, 서울정보 인천, 성남, 안성여자	인천, 경기(화성)	기능대학 5 직업전문학교 2
강원권	춘천	강릉, 정선, 원주, 강원(춘천)	기능대학 1 직업전문학교 4
충청권	청주, 제천 대전, 홍성, 아산정보	충주, 충북(충주) 충남(논산)	기능대학 5 직업전문학교 3
호남권	전북(김제), 고창 광주, 목포	전북(남원), 익산 전남(광주), 순천, 제주	기능대학 4 직업전문학교 5
영남권	대구, 구미, 섬유패션(대구) 부산, 울산, 거창, 창원, 항공(사천)	경북(대구), 포항, 영주, 김천 한독부산, 한백창원, 진주	기능대학 8 직업전문학교 7

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재지는 충청권(충청남도 천안시)임.

괄호()안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소재한 지역임.

○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 학과 및 직종 구성 현황

-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능대학은 6개 계열, 44개 종류의 학과가 전국 23개 대학에 걸쳐 모두 156개 설치되어 있음(<표 V-6> 참조). 수도권에 29개 종류의 학과가 46개, 영남권에 26개 종류의 학과가 51개 설치되어 전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호남권도 19개 종류의 학과가 26개 설치되어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전체 46개 학과 중에서 기계/금속 계열 학과가 18개, 정보/전기·전

자 계열 학과가 16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로 나타났고, 충청권 역시 정보/전기·전자 계열 학과가 11개로 가장 많았음. 호남권의 경우는 디자인/섬유 및 항공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열에서 서로 비슷하게 학과가 구성되어 있음. 영남권은 기계/금속 15개, 정보/전기·전자 계열 14개로 나타났음.

-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공과 및 직종 종류는 각 권역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직종 수에 있어서는 영남권이 68개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 39개, 강원권 33개 순으로 나타났고 충청권이 2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V-6>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설치학과 권역별 현황

계열	학과	수도권 (5개교)	강원권 (1개교)	충청권 (5개교)	호남권 (4개교)	영남권 (8개교)	전체 (23개교)
정보/ 전기, 전자 (12)	정보통신설비과	1		1	1	1	4
	전기과	2	1	2	2	3	10
	전자과	2	1	2		4	9
	전기계측제어과	2		1	2	4	9
	정보통신시스템과	3		2		2	6
	멀티미디어과	2	1	2	1		6
	광전자과	1			1		2
	반도체디자인과	1					1
	컴퓨터게임과	1					1
	컴퓨터정보과				1		1
	영상매체과			1			1
	통신전자과	1					1
기계/ 금속 (8)	컴퓨터응용기계과	3	1	4	2	4	14
	컴퓨터응용금형과	2		1	2	3	8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3			1	2	6
	정밀계측과/나노측정과	1			1		2
	시스템제어정비과	1					1
	자동차과	1		1		1	3
	재료과/컴퓨터응용금속과	2	1		1	3	7
	카일렉트로닉스과	1				2	3
자동화 (3)	자동화시스템과	3		2	2	3	10
	메카트로닉스과	1		3	2	5	11
	플랜트설비자동화과				1		1
건축/ 산업 응용 (5)	건축과/건축리모델링과				1		1
	환경화학과				1		1
	산업설비과	2		3	2	1	8
	건축설비자동화과	1			1	1	3
	인테리어디자인과				1		1
디자인/ 섬유 (16)	시각디자인과	1		1			2
	컴퓨터애니메이션과	1		1			2
	산업디자인과	2	1			2	5
	귀금속공예과	1					1
	인쇄정보미디어과	1					1
	패션디자인과	2				1	3
	텍스타일디자인과					1	1
	섬유소재생산과					1	1
	섬유소재가공과					1	1
	패션메이킹과					1	1
	패션마케팅과					1	1
	섬유경영관리과					1	1
	섬유소재설계과					1	1
	인터넷미디어과	1				1	2
항공 (2)	항공기계과					1	1
	항공전자과						
학과수		46	6	27	26	51	156
학과 종류		29	6	15	19	26	44

<표 V-7> 직업전문학교 기능사 1년 과정 설치 권역별 현황

공과	직종	수도권 (2개교)	강원권 (4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권 (5개교)	영남권 (7개교)	전체 (21개교)
건축시공(1)	철근콘크리트					1	1
귀금속공예(2)	귀금속가공	1			1		2
	보석가공				1		1
금속(2)	정밀주조	1					1
	주조	1					1
금형(3)	사출금형					1	1
	프레스금형					1	1
	전산응용프레스금형					1	1
냉동기계(1)	공조냉동기계		1				1
도장(1)	금속도장	1					1
모델링(1)	제품응용모델링	1	1	1			3
산업설비(10)	건축배관			1	1		2
	건축환경설비		1	1	1	3	6
	플랜트배관			1			1
	에너지설비			1	1	1	3
	열냉동설비		2	1	2	2	7
	전기용접					1	1
	자동화용접	2	1	1	1	3	8
	특수용접	1	1	1	3	3	9
	수중용접		1				1
	플랜트설비		1				1
생산자동화(4)	시스템제어			1		1	2
	전산응용기계가공					1	1
	전산응용기계제도					1	1
	전산응용프레스금형					1	1
재료시험(1)	비파괴시험기기운용					1	1
전기제어(5)	전기계측제어		1	1	3	4	9
	전기공사	1	3	3	2	4	13
	전기기기	1	1		1	1	4
	전기시스템제어	1	1				2
	전력전자		1				1
전자통신(4)	공업전자	1		1	1	4	7
	전자기기		1	1	1	2	5
	전자통신	1		1	2	4	8
	정보통신시스템		1		2	2	5
정밀기계(5)	머시닝센터	1	2	1	2	6	12
	메카트로닉스					2	2
	생산가공				1		1
	컴퓨터응용기계	1	1	1	2	5	10
	CNC선반	2	2	1	3	7	15
출판인쇄(2)	스크린인쇄	1					1
	컴퓨터출판디자인	1					1
카일렉트로닉스(3)	자동차정비	1		2	2	1	6
	카일렉트로닉스	1	3		3	1	8
	동력기계제어		1				1
컴퓨터응용(4)	멀티미디어	1	1	1	1		4
	컴퓨터산업디자인				1	3	4
	컴퓨터애니메이션				1		1
	관광상품디자인		1				1
표면처리(3)	반도체표면처리		1				1
	전기도금	1					1
	특수도금	1					1
호텔운영(1)	호텔운영시스템		1				1
관광게이밍(1)	관광게이밍운용		1				1
직종수		24	33	22	39	68	186
직종 종류		22	25	19	24	29	54

◆ 수도권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 전략산업 현황

- 수도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포괄하며, 전략산업은 의류패션,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생물·환경, 문화 등을 들 수 있음.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권역에 비하여 전략산업의 중요성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산업자원부의 4개 지역산업진흥정책 및 3개 권역 전략산업 육성정책에서도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음.

○ 기능대학 학과 구성 및 모집인원

- 수도권에 있는 기능대학은 서울정수, 서울정보, 인천, 성남, 안성여자 기능대학 등 모두 5개이며, 전략산업과 관련한 여러 학과가 설치되어 있음(<표 V-8> 참조).
-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관련 학과가 6개 학과, 문화산업 관련 학과가 5개 학과, 메카트로닉스산업 4개 학과, 의류패션산업 3개 학과 등이 있음.
- 권역 전략산업 관련 학과의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안성여자기능대학 67%, 서울정보기능대학 4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일 뿐 나머지 대학들은 20~30%대에 그침. 수도권 지역 기능대학의 학과 구성은 기계/금속 계열, 건축/산업응용 계열의 학과 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성여자기능대학의 경우 1개 산업으로 특화되기보다는 수도권의 여러 권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학과 구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직업전문학교 공과 구성 및 모집인원

- 수도권 직업전문학교는 인천직업전문학교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경기직업전문학교 등 2개교 뿐으로 수도권역의 다양한 권역 전략산업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권역 전략산업 관련한 공과는 문화산업 관련하여 출판인쇄, 컴퓨터응용(멀티미디어)

공과가 인천직업전문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정보기기산업 관련해서도 인천직업전문학교의 전자통신 공과가 있음. 경기직업전문학교에는 반도체산업 관련하여 반도체 표면처리 공과가 설치(<표 V-9> 참조).

-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 학과 인원비율은 경기직업전문학교의 경우 7.4%에 그쳤으며, 인천직업전문학교는 3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표 V-8> 수도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기능대학 전략산업	서울정수 기능대학	서울정보 기능대학	인천 기능대학	성남 기능대학	안성여자 기능대학
의류패션		패션디자인66			귀금속공예55 패션디자인55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설비 82	멀티미디어33 통신전자66	정보통신시스템77 멀티미디어33 컴퓨터정보33		
소프트웨어					
반도체					반도체디자인55
전자정보기기	전자54		전자99	광전자66	
메카트로닉스	자동화시스템82		자동화시스템99 메카트로닉스66	자동화시스템66	
생물·환경					
문화	시각디자인54 컴퓨터애니메이션27 인쇄정보미디어54	컴퓨터게임33			인터넷미디어55
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전기60 컴퓨터응용기계82 카일렉트로닉스60 건축설비자동화93	전기계측제어66 컴퓨터응용기계설계33 산업설비66	전기계측제어99 컴퓨터응용기계99 컴퓨터응용금형99 컴퓨터응용기계설계99 자동차99 컴퓨터응용금속99 산업설비99 산업디자인99	전기계측제어66 전기계측제어99 컴퓨터응용기계99 시스템제어정비66 컴퓨터응용금속66 산업디자인33	컴퓨터응용기계설계55 나노측정55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 과 인원 및 비율 (%)	136/648 (21.0)	165/363 (45.5)	407/1,232 (33.0)	132/495 (26.6)	220/330 (66.7)

<표 V-9> 수도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전략산업	직업전문학교	인천직업전문학교	경기직업전문학교
의류패션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표면처리25
전자정보기기		전자통신90	
메카트로닉스			
생물·환경			
문화		출판인쇄70 컴퓨터응용40	
비전략산업 관련학과		금속60 모델링40 산업설비60 전기제어90 정밀기계가공120	모델링35 전기제어50 정밀기계가공25 카일렉트로닉스25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200/570 (35.1)	25/340 (7.4)

◆ 강원권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 전략산업 현황

- 강원권은 강원도 지역을 포괄하며, 전략산업은 의료기기, 생물, 관광, 문화 등을 들 수 있음. 산업자원부 지원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정책 사업에서 강원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을 삼각벨트로 연결하는 생물·의료기기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

○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학과/공과 구성 및 모집인원

- 강원권역에는 기능대학 1개(춘천), 직업전문학교 4개교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과 권역 전략산업의 연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권역 전략산업인 문화산업,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춘천기능대학과 원주직업전문학교에 멀티미디어 학과와 공과가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정선직업전문학교에 관광 관련 공과 2개(호텔운영, 관광게이밍운용)가 전부임(<표 V-10> 참조).
- 전체 모집인원 중에서 전략산업 관련 학과 모집인원도 정선직업전문학교만 47%를

차지할 뿐 다른 기관은 10% 미만이며, 강릉직업전문학교와 강원직업전문학교는 현재 권역 전략산업 관련 학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권역별 공공 직업훈련체제 구축시 강원권에서는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요구됨.

- 춘천기능대학은 기계, 전기·전자 등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학과가 많으며, 여타 직업전문학교들도 산업설비, 정밀기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V-10> 강원권 전략산업 관련 공공직업안정기관 학과/공과 및 모집인원 현황

공공직업훈련기관 전략산업	춘천기능대학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직업전문학교	원주직업전문학교	강원직업전문학교
의료기기					
생물					
관광			호텔운영40 관광게이밍운용40		
문화	멀티미디어33			멀티미디어40	
비전략산업 관련학과	전기55 전자55 컴퓨터응용기계27 재료27 산업디자인27	냉동기계60 산업설비60 전기제어60 전자통신40 정밀기계가공60 카일렉트로닉스60	산업설비30 카일렉트로닉스60	산업설비120 전기제어60 정밀기계가공120	모델링35 전기제어50 정밀기계가공25 카일렉트로닉스25 표면처리25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33/224 (14.7)	0/340 (0.0)	80/170 (47.1)	40/370 (10.8)	0/160 (0.0)

◆ 충청권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 전략산업 현황

- 충청권은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을 포괄하며, 전략산업으로는 정보통신, 정자정보기기·부품, 반도체장비, 생물, 보건의료산업 등을 들 수 있음.
- 충청권의 경우 2002년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전자·생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음.

○ 기능대학 학과 구성 및 모집인원

- 충청권 5개 기능대학에 정보통신산업 관련 학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 났음. 대전기능대학은 멀티미디어, 청주기능대학은 정보통신시스템, 제천기능대학은 정보통신설비, 홍성기능대학은 컴퓨터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음(<표 V-11> 참조).
- 이 외에 전자정보기기산업과 관련 학과가 2개 대학(대전, 청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생물산업, 보건의료산업 관련 학과는 없음.
 - 기계, 자동화 등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학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산정보기능대학은 정보통신 특성화 대학으로 5개 학과 모두 정보통신산업 관련 학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정보기기·부품산업 관련해서는 대전기능대학과 청주기능대학에서 전자과가 설치되어 있음.
 - 2004년 기능대학 모집인원 가운데 전략산업 관련 학과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보통신 특성화 대학인 아산정보기능대학(100%)을 제외하고는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충청지역 기능대학에서는 생물산업이나 보건의료산업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V-11> 충청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기능대학 전략산업	대전 기능대학	청주 기능대학	제천 기능대학	홍성 기능대학	아산정보 기능대학
정보통신산업	멀티미디어33	정보통신시스템33	정보통신설비66	컴퓨터정보66	정보통신시스템88 멀티미디어88 영상매체44 시각디자인44 컴퓨터애니메이션44
전자정보기기·부품산업	전자66	전자93			
생물산업					
보건의료산업					
비전략산업 관련 학과	전기계측제어66 컴퓨터응용기계66 컴퓨터응용금형33 메카트로닉스66 산업설비33	전기60 컴퓨터응용기계93 자동화시스템93 메카트로닉스44	컴퓨터응용기계33 카일렉트로닉스60 메카트로닉스55 산업설비33	전기66 컴퓨터응용기계55 자동화시스템66 산업설비66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	99/363 (27.3)	126/416 (30.2)	66/247 (26.7)	66/319 (20.7)	308/308 (100.0)

○ 직업전문학교 공과 구성 및 모집인원

- 충청권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3개 기관으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권역 전략산업과 연계되기에는 제약이 있음.

- 다음의 <표 V-12>에서 권역 전략산업 관련 공과 구성 현황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충주직업전문학교는 전략산업과는 무관한 정밀기계가공, 산업설비, 전기제어 등 3개 공과가 설치되어 있음. 충북직업전문학교는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정보기기·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전자통신, 컴퓨터응용 공과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모집인원의 약 40%가 충청권역 전략산업과 연관된 것임. 충남직업전문학교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전자통신 공과 1개과가 설치된 상태로 모집인원은 전체 인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권역별 전략산업에 비추어 볼 때 충청권역 직업전문학교들은 학교수 및 학생수도 적으며, 학과 구성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시 지역산업에 특화된 학과 개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표 V-12> 충청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직업전문학교 전략산업	충주직업전문학교	충북직업전문학교	충남직업전문학교
정보통신산업		전자통신30	전자통신55
전자정보기기·부품산업		컴퓨터응용40	
생물산업			
보건의료산업			
비전략산업 관련 학과	정밀기계가공120 산업설비120 전기제어90	모델링25 산업설비20 전기제어20 카일렉트로닉스35	산업설비45 생산자동화30 전기제어25 카일렉트로닉스55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 학과 인원 및 비율(%)	0/330 (0.0)	70/170 (41.2)	55/220 (25.0)

◆ 호남권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 전략산업 현황

- 제주 지역을 포함한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지역을 포괄하며, 전략산업으로는 광, 기계, 자동차부품, 소재(석유화학, 철강), 생물(농업, 해조류), 문화(디자인), 관광 산업 등을 들 수 있음.
- 광산업은 산업자원부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하나로 1차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V장의 <Box 1> 참

조). 한편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의 일환으로 전북, 전남 지역에 대한 자동차부품, 기계, 생물산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음.

○ 기능대학 학과 구성 및 모집인원

- 권역 전략산업과 기능대학 학과 구성 연계 정도는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전북기능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55%)이 권역 전략산업과 관련이 있었고, 광주기능대학은 광산업, 기계산업, 소재산업 등 권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학과가 전체 학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음. 반면 고창기능대학과 목포기능대학은 권역 전략산업 관련학과가 각각 1개였으며, 전략산업 관련 학과 모집인원도 전체 정원 가운데 10%대 수준에 그치고 있음(<표 V-13> 참조).
- 호남권에서는 전략산업 가운데 기계산업 관련 학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기능대학 2개과(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금형), 고창기능대학 1개과(나노측정과), 광주기능대학 2개과(컴퓨터응용금형, 컴퓨터응용기계설계), 목포기능대학 1개과(컴퓨터응용기계) 등 모두 6개과(225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4개 대학 전체 모집인원 1,195명 가운데 18.9%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권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광산업의 경우는 관련 학과가 광주기능대학의 광전자과 1개에 불과하고 모집인원도 33명에 그치고 있음. 그 외 권역 전략산업 관련 학과로는 소재산업과 관련하여 광주기능대학의 컴퓨터응용금속(33명), 문화산업 관련 학과로 전북기능대학의 멀티미디어과(93명)를 들 수 있음.
- 호남권 4개 기능대학에는 현재 자동차부품산업, 생물산업(자생식물·농업), 관광산업 관련 학과는 없으며, 상대적으로 자동화 계열, 건축/산업응용 계열 학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호남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기능대학 전략산업	전북 기능대학	고창 기능대학	광주 기능대학	목포 기능대학
광산업			광전자33	
기계산업	컴퓨터응용기계66 컴퓨터응용금형33	나노측정27	컴퓨터응용금형33 컴퓨터응용기계설계33	컴퓨터응용기계33
자동차부품산업				
소재산업			컴퓨터응용금속33	
생물산업				
문화산업	멀티미디어93			
관광산업				
비전략산업 관련 학과	전기계측제어93 메카트로닉스33 산업설비과33	전기27 정보통신시스템33 건축리모델링27 인테리어디자인33	전기계측제어93 자동화시스템33 메카트로닉스60 건축설비자동화33	전기계측제어93 컴퓨터정보66 자동화시스템33 산업설비66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192/351 (54.7)	27/147 (18.4)	132/411 (32.1)	33/286 (11.5)

○ 직업전문학교 공과 구성 및 모집인원

- 호남권 산하 5개 직업전문학교는 앞서 살펴본 호남권 4개 기능대학보다 권역 전략 산업에 더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순천직업전문학교(40%)만 제외하고는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권역 전략산업 관련 공과의 인원이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 전략산업도 광산업, 기계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문화산업 등에 걸쳐 3~4개 공과가 설치되어 있음(<표 V-14> 참조).
- 특히 전남직업전문학교는 전자통신, 정밀기계가공 등 전체 공과 6개 중 4개가 권역 전략산업과 관련이 있는 공과였으며 모집인원의 70% 이상이 권역 전략산업 관련 학과였음. 제주도 역시 5개 공과 가운데 4개 공과, 그리고 모집인원의 80% 이상이 권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전략산업이 제주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 치우쳐 있어 지리적인 측면에서 제주 지역에서 이들 산업 관련 인력 육성을 특화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예상됨. 따라서 제주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이나 해조류 자생식물 등의 생물산업에 특화된 공과의 설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익산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한 4개 학교에 전자통신 공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북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한 4개 학교에 정밀

기계가공 또는 컴퓨터응용기계 공과가 설치되어 있음.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공과로는 전북, 전남, 제주직업전문학교에 카일렉트로닉스 공과가 설치되어 있음. 문화산업 관련 공과도 익산에 귀금속공예, 전북에 멀티미디어, 전남에 컴퓨터애니메이션, 제주에 컴퓨터산업디자인 공과가 있음.

- 그러나 소재산업 및 생물산업과 관련한 공과는 없음.

<표 V-14> 호남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직업전문학교 전략산업	익산 직업전문학교	순천 직업전문학교	전북 직업전문학교	전남 직업전문학교	제주 직업전문학교
광산업		전자통신30	전자통신50	전자통신45	전자통신30
기계산업	정밀기계가공120	정밀기계가공110		정밀기계가공30	컴퓨터응용기계30
자동차부품산업			카일렉트로닉스25	카일렉트로닉스70	카일렉트로닉스60
소재산업					
생물산업					
문화산업	귀금속공예90		멀티미디어25	컴퓨터애니메이션 40	컴퓨터산업디자인 30
비전략산업 관련 학과	산업설비120 전기제어60	산업설비110 재료시험40 전기제어60	산업설비25 전기제어25	산업설비30 전기제어45	전기제어30
모집인원 대비 전 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210/390 (53.8)	140/350 (40.0)	100/150 (66.7)	185/260 (71.2)	150/180 (83.3)

◆ 영남권 전략산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 전략산업 현황

- 영남권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포괄하며, 전략산업으로는 신발, 섬유,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기계, 항공우주, 생물 산업 등을 들 수 있음.
- 부산 지역의 신발산업,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 경남 지역의 기계산업은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지원사업을 받아 1차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음. 특히 경남 지역의 기계산업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V장 <Box 2> 참조). 또한 울산, 경북 지역은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생물 산업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지원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음.

○ 기능대학 학과 구성 및 모집인원

- 영남권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3개 기능대학(대구, 섬유패션, 구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5개 기능대학(부산, 울산, 거창, 창원, 항공)이 있음. 권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정도는 울산기능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각 대학마다 3~4개 정도의 학과가 권역 전략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모집인원도 전체 인원의 4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표 V-15> 참조).
- 영남권 전략산업 가운데 기계산업, 전자정보기기,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등이 기능대학 학과 구성과 가장 잘 연계된 산업으로 나타남. 기계산업과 관련해서는 부산, 대구, 창원 기능대학에서 2개 학과씩, 구미, 울산, 거창 기능대학에서 1개 학과씩 모두 9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음. 전자정보기기산업은 섬유패션기능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1~2개 학과씩 설치되어 있으며(항공기능대학의 경우 항공전자과), 자동차산업 관련 학과는 부산, 거창, 창원 기능대학에 약 50~60명의 정원으로 1개 학과씩 설치되어 있음.
- 특성화 기능대학을 살펴보면 권역 전략산업으로 특화된 섬유패션기능대학이 모두 9개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항공기능대학 역시 항공산업으로 특화된 대학으로, 항공기계, 항공전자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시스템, 전기계측제어, 메카트로닉스 학과 등 일반 학과에서도 항공분야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신발산업, 정밀화학산업과 관련된 학과는 없으며, 생물산업 관련 학과도 대구와 창원에 환경화학과(모집인원 33명) 1개씩만 설치되어 있어 있는 형편임.

<표 V-15> 영남권 전략산업 관련 기능대학 학과 및 2004년 모집인원 현황

기능대학	대구기능대학	섬유패션기능대학	구미기능대학	울산기능대학
전략산업				
신발산업				
섬유산업		섬유 및 디자인 관련 9개 학과 467		
자동차산업				
정밀화학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전자66		전자66 정보통신시스템33	
기계산업	컴퓨터응용기계99 컴퓨터응용금형66		컴퓨터응용기계66	컴퓨터응용기계33
항공우주산업				
생물산업	환경화학33			
비전략산업 관련학과	전기계측제어99 정보통신시스템33 메카트로닉스99 건축설비자동화66		전기계측제어66 컴퓨터정보66 자동화시스템60	정보통신설비93 전기33 재료33 자동화시스템93 산업설비66 산업디자인27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264/561 (47.1)	467/467 (100.0)	165/357 (46.2)	33/384 (8.6)
기능대학	부산기능대학	거창기능대학	창원기능대학	항공기능대학
전략산업				
신발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카일렉트로닉스66	자동차55	카일렉트로닉스66	
정밀화학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정보통신시스템66	전자27	전자99	정보통신시스템44
기계산업	컴퓨터응용금형93 컴퓨터응용기계설계93	컴퓨터응용기계설계27	컴퓨터응용기계66 컴퓨터응용금형99	
항공우주산업				항공기계88 항공전자44
생물산업			환경화학33	
비전략산업 관련학과	전기계측제어93 메카트로닉스93	전기계측제어27 메카트로닉스27 산업디자인27	전기99 재료66 자동화시스템99 메카트로닉스66 플랜트설비자동화33	전기계측제어44 메카트로닉스44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318/504 (63.1)	109/190 (57.4)	330/726 (45.5)	116/264 (43.9)

○ 직업전문학교 공과 구성 및 모집인원

- 영남권 산하 7개 직업전문학교는 각 학교별로 권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가 2~3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과의 모집인원도 전체 인원 가운데 약 40~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V-16> 참조). 그러나 권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정도를 기능대학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공과가 기계산업과 전자정

보기기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대학과 마찬가지로 직업전문학교도 기계산업 및 전자정보기기 관련 공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정밀기계가공 공과가 모집인원 60~160명 수준에서 각 학교마다 1개씩 모두 7개 공과가 설치되어 있음. 전자정보기기산업 관련 공과는 진주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자통신과가 6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음.
- 반면 신발산업, 섬유산업, 정밀화학산업, 항공우주산업, 생물산업 관련 공과는 없으며, 자동차산업 관련 공과도 카일렉트로닉스 공과가 경북직업전문학교에만 설치되어 있음.

<표 V-16> 영남권 전략산업 관련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2003년 모집인원 현황

직업전문학교	경북직업전문학교	포항직업전문학교	영주직업전문학교	김천직업전문학교
전략산업				
신발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카일렉트로닉스60			
정밀화학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전자통신90	전자통신60	전자통신50	전자통신40
기계산업	정밀기계가공80	정밀기계가공150	정밀기계가공60	정밀기계가공80
항공우주산업				
생물산업				
비전략산업 관련학과	생산자동화30 전기제어60 컴퓨터산업디자인60	산업설비120	산업설비50 전기제어50	건축시공30 산업설비80 전기제어50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	230/380 (60.5)	210/330 (63.6)	110/270 (40.7)	120/280 (42.9)

직업전문학교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	진주직업전문학교
전략산업			
신발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정밀화학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전자통신90	전자통신60	
기계산업	정밀기계가공120	정밀기계가공110	정밀기계가공160
항공우주산업			
생물산업			
비전략산업 관련학과	금형60 산업설비60 전기제어60	금형50 산업설비50 생산자동화90	전기제어80 컴퓨터산업디자인60
모집인원 대비 전략산업 관련학과 인원 및 비율 (%)	210/390 (53.8)	170/360 (47.2)	160/300 (53.3)

3. 지역산업 특성화에 따른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특성화 방안 검토

가. 기능대학

○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처하고자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향후 이루어질 기능대학의 학과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기능대학을 ‘지명’ 중심에서 ‘특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신범석 외, 2000).

- 수도권

- 서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애니메이션, 패션·디자인, 공장자동화, 정보통신설비, 출판·인쇄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서울정수기능대학을 소프트웨어로, 서울강서기능대학(현 서울정보기능대학)을 멀티미디어 또는 인터넷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인천: 게임,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전자·정보통신, 물류, 자동차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인천기능대학을 게임/애니메이션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경기: 전자·정보통신, 컴퓨터, 신소재, 정밀기기, 디자인, 공장자동화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성남기능대학을 정보통신과 자동화로, 안성여자기능대학을 전통공예와 디자인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강원권

- 강원: 출판, 생물·환경, 관광서비스,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춘천기능대학을 생물·환경과 관광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충청권

- 대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신소재, 정밀화학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제안하고, 대전기능대학을 정밀화학과 신소재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충남: 금속, 자동차, 석유화학, 정보통신, 자동화, 영상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제안하고, 홍성기능대학을 금속/주조와 화학으로, 아산정보기능대학을 정보통신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충북: 영상음향, 정밀기기, 물류, 관광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제안하고, 청주기능대학을 영상음향과 정밀기기로, 제천기능대학을 물류관광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호남권

- 광주: 반도체, 정보통신, 신소재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광주기능대학을 반도체와 정보통신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전북: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물, 문화·관광, 신소재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전북기능대학을 자동차와 문화영상으로, 고창기능대학을 첨단농업가공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전남: 생물·환경, 메카트로닉스, 물류, 문화·관광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목포기능대학을 해양수산으로 특성화 할 것으로 제안.

- 영남권

- 대구: 섬유/의복/패션, 디자인, 메카트로닉스, 환경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대구기능대학을 섬유, 메카트로닉스, 환경으로, 섬유패션기능대학을 섬유패션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경북: 전자, 섬유 의류,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구미기능대학을 전자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부산: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기기, 항공우주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부산기능대학을 정보통신으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
- 울산: 자동차, 기계·조립·금속, 전자, 신소재, 정밀화학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울산기능대학을 신소재화학으로 특성화할 것을 제안.
- 경남: 공작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항공기계·전자 등을 지역산업 특성으로 선정하고, 창원기능대학을 기계자동화로, 거창기능대학을 전기·전자와 자동차로, 항공기능대학을 항공으로 특성화할 것을 제안.

○ 특성화 방안 평가

- 개별 기능대학 특성화 산업 선정과 관련 학과 현황, 그리고 권역별 전략산업을 비

교한 것이 다음의 <표 V-17>임.

- 개별 기능대학 특성화 산업은 산업자원부의 3개 권역 전략산업 육성정책 사업 이전에 선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정수, 서울정보, 성남, 안성여자 기능대학 등 수도권, 춘천기능대학 등 강원권, 광주, 전북, 고창, 목포 기능대학 등 호남권, 대구, 구미, 섬유패션, 울산, 거창, 창원, 항공 기능대학 등 영남권 등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음. 단 정밀화학·신소재 산업의 대전기능대학, 물류관광의 제천기능대학 등은 현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능대학의 특성화 개편 현황을 평가해보면 현재 서울정보기능대학, 아산정보기능대학, 섬유패션기능대학 등 3개 특성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기능대학은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서울정수, 춘천, 대전, 제천, 홍성, 고창, 목포, 울산 기능대학은 2000년에 제안된 특성화 관련 단 1개 학과가 2004년 모집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능대학의 특성화 개편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개편할 때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데서 요구되는 일정한 시간과 절차적 까다로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김주섭 외, 2002). 따라서 개편의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V-17> 기능대학 특성화 방안 관련 학과

권역	기능대학	특성화 방안	특성화 방안 관련 학과(명)	권역별 전략산업
수도권	서울정수	소프트웨어	-	의류패션,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생물·환경, 문화
	서울정보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33), 통신전자(66)	
	인천	게임/애니메이션	산업디자인(99), 컴퓨터정보(33)	
	성남	정보통신/자동화	광전자(66), 자동화시스템(66)	
	안성여자	전통공예/디자인	귀금속공예(55), 패션디자인(55)	
강원권	춘천	생물·환경, 관광	-	의료기기, 생물, 관광, 문화
충청권	대전	정밀화학, 신소재	-	정보통신, 전자정보기기·부품, 메카트로닉스, 생물(의화학, 동물자원), 보건의료산업
	청주	영상음향, 정밀기기	컴퓨터응용기계(93)	
	제천	물류관광	-	
	홍성	금속/주조, 화학	-	
	아산정보	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등 5개과(308)	
호남권	광주	반도체, 정보통신	광전자(33)	광, 기계, 자동차부품, 소재(석유화학, 철강), 생물(농업, 해조류), 문화(디자인), 관광
	전북	자동차, 문화영상	멀티미디어(93)	
	고창	첨단농업가공	-	
	목포	해양수산	-	
영남권	대구	섬유, 메카트로닉스, 환경	메카트로닉스(99), 환경화학(33)	신발, 섬유,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디지털가전), 생물(건강식품, 환경), 기계
	구미	전자	전자(66), 정보통신시스템(33)	
	섬유패션	섬유패션	섬유 및 패션 관련 9개과(467)	
	부산	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66)	
	울산	신소재화학	-	
	거창	전기전자, 자동차	전자(27), 전기계측제어(27), 자동차(55)	
	창원	기계자동화	자동화시스템(99), 플랜트설비자동화(33)	
	항공	항공	항공기계(88), 항공전자(44)	

나. 직업전문학교

○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추고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전문학교 기관별 특성화 방안을 발표(한국산업인력공단, 2002b).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미 지역특성이 반영된 인천(인쇄), 강릉(수중용접), 정선(관광), 포항(제철), 한백창원(기계), 진주(기계), 순천(제철) 등 7개 직업전문학교는 기존 직종을 운영하되 신기술 장비를 보강
- 원주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8개 기관은 직종 신설·개편 및 기관간 직종 조정을 통하여 특성화를 추진함. 새롭게 직종을 신설하여 특성화를 추진하는 4개 직업전문학

교는 원주직교(의료기기), 강원직교(애니메이션), 전남직교(광산업), 제주직교(자생식물·관광) 등이며, 기존의 직종을 개편하여 특성화를 추진하는 4개 직업전문학교로는 경기직교(전기도금→자동차부품 및 도장), 강원직교(제품응용모델링→캐릭터모델링), 충북직교(공업전자→반도체장비, 전자통신→반도체장비설비), 익산직교(귀금속가공→주얼리캐드), 경북직교(전자기기→전자정보기기), 전남직교(공업전자→광통신), 제주직교(컴퓨터산업디자인→관광상품디자인)임.

- 직종 이전 기관은 전남직교→강원직교(애니메이션), 강원직교→충북직교(반도체표면처리), 강원직교→한독부산직교(카일렉트로닉스)임.
- 한편 지역산업 여건이 미약한 충주, 영주, 김천, 전북 직업전문학교는 특성화 방안에서 제외

<표 V-18> 직업전문학교별 특성화에 따른 직종 설치 및 개편 방안

구분	특성화산업	특성화 직종		비고
		기존 개설공과·직종	신설 및 개편 직종	
인천	멀티미디어 인쇄	멀티미디어(30) 스크린인쇄(30) 컴퓨터출판디자인(30)	-	신기술 장비 보완
경기	자동차	자동차정비(30) 카일렉트로닉스(30) 도금(60) 금속도장(30)	전기도금(30)→자동차부품표면처리 금속도장(30)→자동차도장	자동차 특화
강릉	수산자원	수중용접(30)	-	신기술 장비 보완
정선	관광	관광상품디자인(30) 호텔운영시스템(30) 관광게이밍(40)	-	관광특화
원주	의료기기	-	의료전자(30)	직종신설
강원	애니메이션	제품응용모델링(40)	제품응용모델링(30)→캐릭터모델링 애니메이션(30)(전남→강원) 게임제작(30) 신설	애니메이션 특화
충북	반도체장비 전자정보부품 보건의료산업	전자통신(30) 공업전자(30)	공업전자(30)→반도체가공 전자통신(30)→반도체장비설비 반도체표면처리(30)(강원→충북)	반도체 특화
경북	섬유 전자정보기기 디지털가전	정보통신시스템(30) 전자통신(30) 전자기기(30)	전자기기(30)→전자정보기기	직종 개편
포항	철강 제철	정밀기계(180) 산업설비(120)	-	제철 특화
한독	신발 자동차	-	카일렉트로닉스(30)(강원→한독)	직종 신설
한백	기계	정밀기계(120) 생산자동화(150) 산업설비(120)	-	정밀기계 특화
진주	기계	정밀기계(210)	-	신기술 장비 보완
익산	기계 자동차 귀금속	귀금속가공(60) 보석가공(30)	귀금속가공(30)→주얼리캐드	직종개편
전남	광산업	공업전자(60)	공업전자(30)→광통신 광정밀기기(30) 신설	호남지역 첨단기술훈련센터 전환
순천	제철 철강	정밀기계(120) 산업설비(120)	-	신기술 장비 보완
제주	자생식물 관광	컴퓨터산업디자인(30)	컴퓨터산업디자인(30) →관광상품디자인 호텔운영시스템(30) 신설	직종 개편·신설

주: 충주, 영주, 김천, 전북 등 지역산업여건이 미약한 기관 및 충남(개편) 제외.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방안」. 2002. 8.

○ 특성화 방안 평가

- 직업전문학교 특성화 방안은 계획 수립시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권역별 전략산업과 잘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특성화 방안에 따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가 각 직업전문학교별로 1~2개 직종을 신설하거나 개편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전하는 수준에서 기관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강릉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수중용접 직종을 개설하여 수산자원으로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원주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의료전자 직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료기기로의 특화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반도체 특성화를 꾀하는 충북직업전문학교의 반도체가공, 반도체장비설비 직종의 신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강원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전하기로 한 반도체표면처리 직종도 여전히 강원직교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임.
- 또한 충주, 영주, 김천, 전북직업전문학교 등을 지역산업여건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특성화 개편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역특화산업이나 권역 전략산업으로 특화가 더욱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Ⅵ.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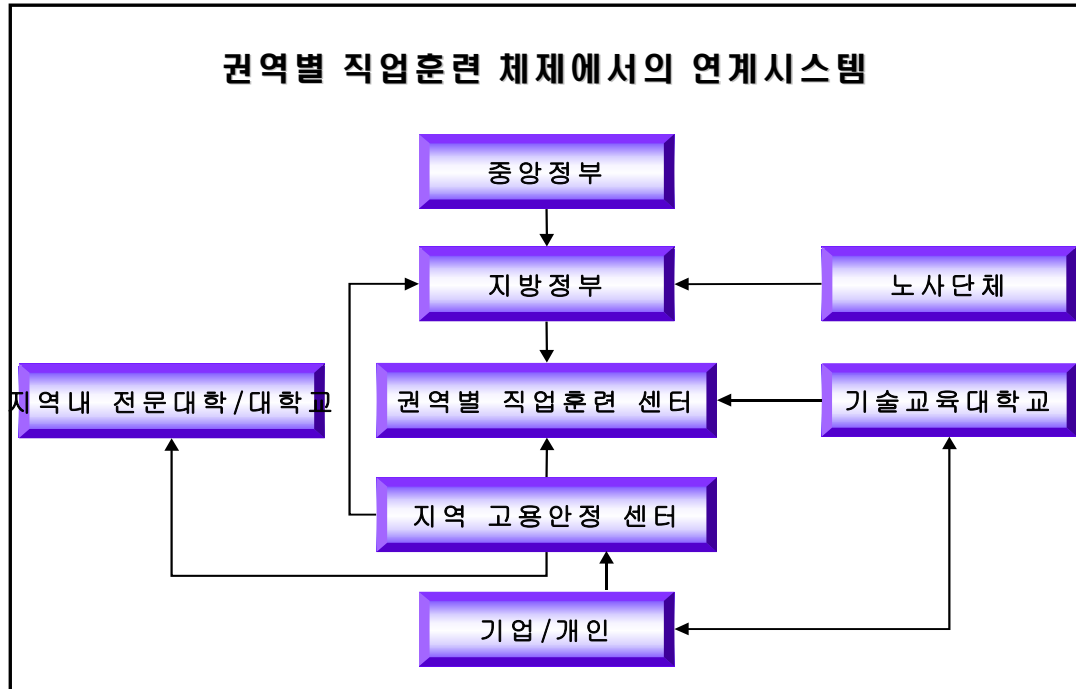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의 기본 취지는 공공직업훈련 운영체제의 분권화에 있음.
따라서 공공직업훈련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에 대한 중앙에서 권역으로의 대폭적인 이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재정지출에 관한 권한, 인사권, 공과개편에 관한 권한 등에 관한 실질적인 이양이 뒤따라야 할 것임.
 - 권한의 이양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부과하여야 할 것임.
- 권역내 직업훈련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권역별운영체제가 내실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지역 고용안정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강화는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공공직업훈련기관간 연계 역시 훈련의 효율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향임.
- 권역간 협력관계 및 훈련기준의 설정과 경영자문을 위한 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 산업인력공단의 주요기능은 지역별 노동시장 관련 정보제공과 훈련기관 경영 컨설팅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구체 방안

○ 권역별 직업훈련 체제의 개략적인 운영과 연계망은 [그림 VI-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음.

[그림 VI-1] 권역별 직업훈련 체제에서의 연계시스템



가. 권역별 직업훈련체제의 작동원리

○ 권역별 연계체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조직은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센터임.

-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권역별 공공직업훈련 수요조사
- 훈련기관의 특성화 전략 수립
- 훈련직종 개발 및 직무분석
- 훈련과정 개발
- 권역내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방안 모색
- 공공직업훈련 홍보

- 고용안정센터에 직업훈련 관련 정보제공
 -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직업훈련 수요 파악
 - 지자체 및 지역내 산업체와 노동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훈련기관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훈련기관간 통합과정의 부작용을 완화.
- 산업인력공단 산하 지역본부의 기능은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기능에 흡수통합
 -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한국교육기술대학교에서 재교육 담당)후 재배치
 - 그러나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경영층은 가급적 민간인력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관료화 및 운영의 경직성 탈피.

나. 지역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

- 고용안정센터에 지역내 훈련기관 및 과정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상담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그리고 고용안정센터 간의 인적교류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 직업훈련 종사들 모두가 다양한 전문성을 갖도록 유도.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훈련수요자에게 공공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다. 기술교육대학의 역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전통적 기능인 훈련교사 양성기능에 더하여 권역별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요원의 정기적 재교육,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문기능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인력을 활용하여 한기대가 공공직업훈련기관 간 연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R&D기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지역별 직업 및 산업수요의 현황과 변화 전망 연구
- 신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교육훈련 기법 개발
- 사이버 교육훈련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일선 직업훈련기관의 사이버 교육훈련 운영지원

○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공공직업훈련교사 양성만이 아니고, 민간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민간직업훈련교사 및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양성은 민간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다양한 인력양성이 한기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님.
- 더욱이 한기대 졸업생이 민간 및 기업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훈련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음.

라. 지방정부와의 연계 강화

○ 지방고용정책심의회 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노동정책 관련 자문기구에 훈련담당자의 참여 확대

○ 지역 역점사업에서 인력양성 수요의 파악 및 훈련계획 수립시 훈련담당자의 참여 확대

마. 권역내 훈련기관의 운영

○ 훈련교사 우대책 강구

- 공공직업훈련 발전의 성패는 상당부분 일선 훈련교사들의 질과 그들의 업무에 대한 몰입도에 의해 결정됨.
- 훈련교사들에 대한 예우를 일반 교육기관의 교사예우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이 훈련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금수준에서 뿐 아니라, 안식년 휴가제도의 도입, 연수 및 재교육 기회 확충, 훈·포장 등의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 훈련교사들의 예우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훈련교사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철저히 하고, 연봉제와 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훈련교원 시장의 유연화를 꾀함으로써 훈련교사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기관의 책임경영제 도입

- 기관경영에 있어서도 최고경영자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방식의 책임경영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기관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함.
- 최고경영자에게는 학생 선발권, 교원 임용권, 훈련과정 개편에 관한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기관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함.
- 또한 기관 최고경영자 인사에 있어서도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여 공공훈련기관 경영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최고경영자 인사에 현장교사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최고경영자와 현장교사들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기관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함.
- 정부는 경영성과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최고경영진의 보수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성과가 좋은 기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영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쁜 경우에는 기관의 퇴출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위해 5~6개 기관에 대한 시범실시를 수행함으로써 책임경영제의 효과를 검증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성과 평가의 내실화

- 기관의 성과 평가를 내실화하고, 특정 기관이 계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일 경우 강제적 퇴출이 상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기관의 성과 평가는 기관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달성하여야 할 기준성과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기관의 성과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 서열식 평가방식으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선 기관의 강력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평가자 전원은 공공직업훈련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함.

참 고 문 헌

- 강경중·김종우, 2002.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 한·호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혜원, 2001. “영국의 직업능력정책 분석: 효율성 대 형평성.” 『직업능력개발연구』 제4권 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a.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b.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김득영, 2003. “일본의 공공직업능력개발의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제6권 5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문각·김순원, 2002. 『21세기 공공직업훈련의 국제공향』.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주섭, 2001. “직업훈련 환경변화의 중장기전망과 대응의 방향: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 2001/2002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발표논문.
- 김주섭 외, 2000. 『공공직업훈련기관 역할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주섭 외, 2001. 『공공직업훈련 투자효과 분석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주섭 외, 2002. 『공공훈련기관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 김희연, 2002. “직업훈련분야의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 연구: 영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노동부, 2003a.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노동부, 2003b. 『2003년판 노동백서』.
- 산업자원부, 2002.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 산업자원부, 2003.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신명훈, 2002.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최근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제5권 3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범석 외, 2000. 『기능대학의 지식기반산업 관련학과 확대 및 개편 방안 연구』. 다산경영컨설팅.
- 이상일, 1998. 『미국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새로운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표, 2003. “호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훈련 개혁 동향.” 『직업과 인력 개발』 제6권 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영순, 2002. “한국과 영국의 청소년 고용증진정책 비교연구: 직업훈련 중심.” 『한국사회 복지학』 제49호. 나남출판.
- 정택수 외, 2000. 『기능대학 통합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2001. “호주의 인적자원개발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제4권 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교법인 기능대학, 2001. 「2001년도 대학 평가 수혜자영역평가 결과보고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1a. 『통계연보』 제4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1b.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년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a. 「'02학년도 기능사양성 1년과정 학생모집실적 종합결과보고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b. 「공단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지표』.
- Shigemi Yamata, 2003. “일본의 민간·공공 직업훈련 분야의 주요정책.” 『직업과 인력개발』 제6권 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Tom Kamel, 2002.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직업과 인력개발』 제5권 5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록 1> 기능대학 학과별 모집인원 현황(2004년)

계열	학과	서울 정수	서울 정보	인천	성남	안성 여자	춘천	청주	제천	대전	홍성	아산 정보	진북	고창	광주	목포	대구	구미	섬유 패션	부산	울산	거창	창원	항공	모집 인원수
정보/ 전기, 전자	정보통신설비과	82							66												93				241
	전자계산기과																								0
	전기과	60					55	60			66			27							33		99		400
	전자과	54		99			55	93		66							66	66				27	99		625
	전기계측제어과		66	99	66					66			93			93	33			93		27		44	845
	정보통신시스템과			77				33				88	93	33						66				44	374
	멀티미디어과		33	33			33					88													313
	광전자과				66										33										99
	반도체디자인과					55																			55
	컴퓨터게임과		33								66							66							33
기계/ 금속	컴퓨터정보과			66												66									264
	영상매체과											44													44
	통신전자과		66																						66
	컴퓨터응용기계과	82		99	66		27	93	33	66	55		66			66	99	66			33		66		917
	컴퓨터응용금형과			99	66					33			33		33		66			93			99		522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33	99		55									93					93		27			400
	정밀계측과/나노측정과					55								27											82
	시스템제어정비과				66																				66
	자동차과			99																		55			154
	재료과/컴퓨터응용금속과			99	66		27								33		33				33		66		357
자동차	카일렉트로닉스과	60							60											66					252
	자동차시스템과	82		99	66			93			66		33		33	55		60			93		99		746
	메카트로닉스과		66					44	55	66					60					93		27	66		653
	플랜트설비자동화과													27											33
건축/ 산업 응용	건축과/건축리모델링과																								27
	환경화학과																33					33			66
	산업설비과		66	99					33	33	66		33			66					66				462
	건축설비자동화과	93													33		66								192
디자인 /섬유	인테리어디자인과													33											33
	시각디자인과	54										44													98
	컴퓨터애니메이션과	27										44													71
	산업디자인과			99	33		27														33	27			219
	귀금속공예과					55																			55
	인쇄정보미디어	54																							54
	패션디자인과		66			55													93						214
	텍스타일디자인과																		66						66
	섬유소재생산과																		33						33
	섬유소재가공과																		55						55
항공	패션메이킹과																		44						44
	패션마케팅과																		44						44
	섬유경영관리과																		44						44
	섬유소재설계과																		44						44
	인테리어디자인과					55													44						99
	항공기계과																								88
항공전자과																								44	
전체		648	363	1232	495	330	224	416	247	363	319	308	351	147	411	286	561	357	467	504	384	190	726	264	9583

<부록 2> 직업전문학교 공과 및 직종 모집정원(2003년)

(단위: 명)

학과		인천	강릉	정선	원주	경기	강원	충주	충북	충남	한독 부산	경북	한백 창원	포항	영주	김천	진주	익산	순천	전북	전남	제주	합계
공과 및 직종	철근콘크리트															30							30
귀금속공예	귀금속가공				30													60					90
	보석가공																	30					30
금속	정밀주조	30																					30
	주조	30																					30
금형	사출금형									30													30
	프레스금형									30													30
	전산응용프레스금형											50											50
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60																				60
도장	금속도장				60																		60
모델링	제품응용모델링	40				35		25															100
산업설비	건축배관							○		25				○	○				30				55
	건축환경설비			30				30						30	30	30					30		180
	플랜트배관								30														30
	에너지설비							30						30				30					90
	열냉동설비			30	30				20						20	20		30	30				180
	전기용접							○			○		○	30				○					30
	자동화용접	30			30	30		30			30		30		○	30		30					240
	특수용접	30			30			30			30		20	30	○	○		30	50	25			275
	수중용접		30																				30
	플랜트설비		30																				30
생산자동화	시스템제어								30		30												60
	전산응용기계가공												60										60
	전산응용기계제도												30										30
	전산응용프레스금형												50										50
재료시험	비파괴시험기기운용																		40				40
전기제어	전기계측제어						25	60			30				30	30	50	30	60	25			340
	전기공사	60	30		30		25	30	20	25	30	60			20	20				○	45	30	425
	전기기기	30			30												30	30					120
	전기시스템제어		30		50																		80
	전력전자	○			30																		30
전자통신	공업전자	60							○	30	30		30	30	30						45		255
	전자기기		○							25		30	30	30						○			85
	전자통신	30							30		60	30	30		20					25		30	255
	정보통신시스템		40									30				40			30	25			165
정밀기계가공	머시닝센터	30			30		25	30			30	30	60	30	○	30	50	30	30				405
	메카트로닉스													30			50						80
	생산가공																		50				50
	컴퓨터응용기계	60			30			30			60			30	30	20	30	60				30	380
	CNC선반	30	60		60	50	○	60			30	50	50	60	30	30	30	30	30		30		630
출판인쇄	스크린인쇄	30																					30
	컴퓨터출판디자인	40																					40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정비		○			30			35	55		30									30	30	210
	카일렉트로닉스		30	30		30	25					30			30					25	40	30	270
	동력기계제어		30																				30
컴퓨터응용	멀티미디어	40			40				40											25			145
	컴퓨터산업디자인											60			30		60					30	180
	컴퓨터애니메이션																				40		40
	관광상품디자인			30																	○		30
표면처리	반도체표면처리						25																25
	전기도금					30																	30
	특수도금					20																	20
호텔운영	호텔운영시스템			40																			40
관광게이밍	관광게이밍운용			40																			40
학교별 합계		570	340	170	370	330	160	330	170	220	390	380	360	330	270	280	300	390	350	150	260	180	6300

노동부

Ministry of Labor